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09.07

www.airforce.mil.kr Vol.373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1

F51 무스탕을 찾아서

기획특집2

진화하는 항공우주의료원

기획특집3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요약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밤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차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흠투성이 갑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동시 당선, 1974년 「심상」 신인상 당선. 시집 『황야』, 『열 손가락에 달을 달고』, 『부엌의 불빛』 등이 있다.

시 해설

구부러진 길은 천천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은 꽃과 사람을 만나며 가는 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산도 넘고 사람 사는 마을도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람도 쉬운 길로 혼자서만 가는 사람이 있고 구부러진 길을 택해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요?

- 시인 도종환

CONTENTS

2009.07

www.airforce.mil.kr Vol.373



표지설명 : 새롭게 문을 연 항공우주요원의 건강검진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항공우주요원장과 간호사들

표지사진 : 김윤해 사진작가

공군 July 2009 No.373

발행일자 | 2009년 7월 6일(통권 제373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명사로부터 듣는다 _ 북한의 새로운 군사위협과 한국 공군의 역할
- 06 기획특집 1 _ F-51 무스탕을 찾아서
- 12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7파운드 살점의 비밀
- 14 기획특집 2 _ 진화하는 항공우주요원
- 18 이등병이 쓴다! _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 20 Beauty 바이러스 _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
- 22 참모총장 스케치
- 24 부대동정 _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 빨라진다
_ 代이어 한국 지키는 美 공군장병들
- 26 공군은 지금
- 28 e-Sports, <ACE> _ System Works!!
- 31 책마을 _ 전쟁의 재발견
- 32 World-Wide Vision _ 구름을 넘어
- 36 창군 60주년 특집 6 _ 7월의 공군역사
_ 공군의 역대 기종을 알아본다 6
- 40 기획특집 3 _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그려본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 44 항공 글터 _ 집과 집사이
- 46 Bird-Alert! _ 천사의 옷을 입은 백로
- 49 PREVIEW _ 7월의 문화행사
- 50 생각하는 그림 _ 14일간의 목발마라톤
- 52 전재인의 일상차반사 _ 은은한 차 맛의 비결
- 54 정홍래의 음악산책 _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은 기억하자 2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5월호를 읽고서

북한의 새로운 군사위협과 한국 공군의 역할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원을 촉구하면서 선군정치를 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의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강성대국의 핵심은 군사강국에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강국 건설은 우리에게 재래식 위협은 물론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는 사정거리 300km의 SCUD-B, 500km의 SCUD-C를 생산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배치 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개발에 착수하여 최근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8월 31일과 2006년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 시험 발사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에서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탄체의 단단계 분리 등 제반기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6,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1960년대에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 이래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해 오고 있다. 2003년 이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에서 얻어낸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북한은 이미 20~40 kg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를 핵 무기화하여 현재 5~6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지하 핵 실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제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만 확보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핵무기 위협은 하나의 구체적 실체로 다가서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상의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5일 국회

▶ 길이	13.4m	▶ 비행시간	35시간
▶ 날개 폭	35.3m	▶ 비행고도	20km
▶ 무게	11.6t	▶ 가격	대당 4500만 달러
▶ 비행속도	시속 629km	▶ 식별능력	20km 상공서
▶ 비행거리	2292000km	▶ 30km 지상의 물체	

[사진: 그래픽=AP]

▶ 20km 고도에서 24시간 동안 5550km의 거리를 비행
▶ 앞면 카메라와 적외선 및 특수레이더 카메라를 탑재

통신위성

영상 전송

영상 전송

지상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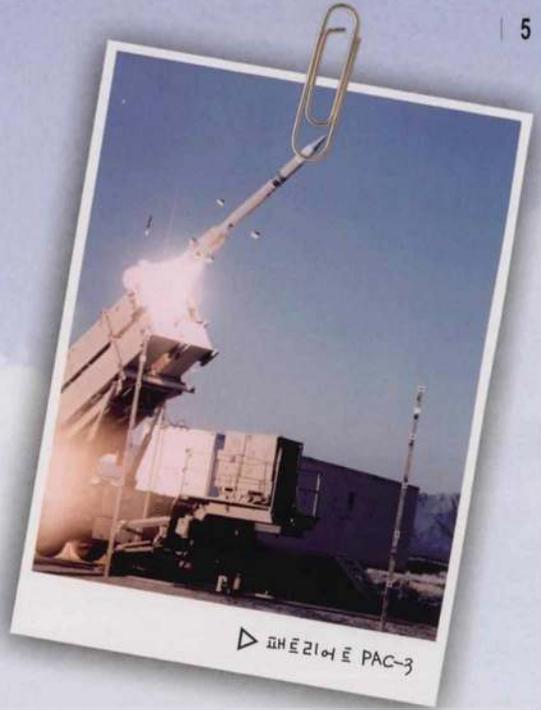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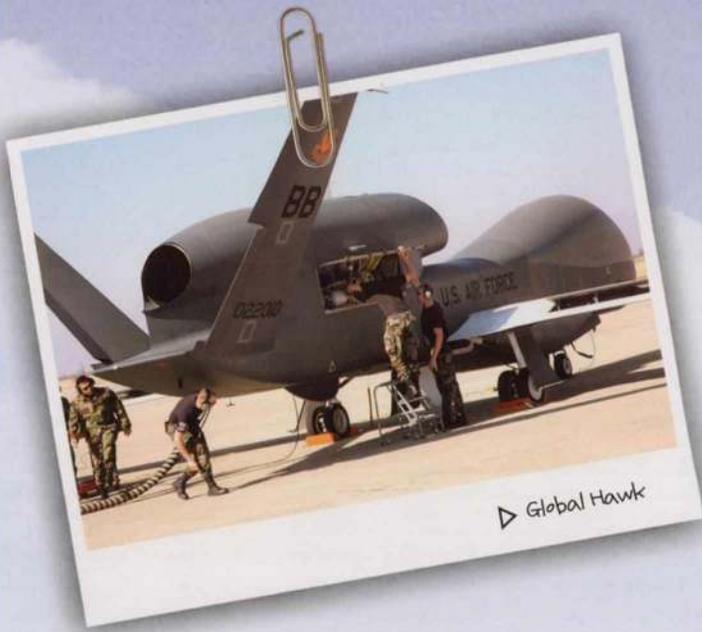
지상 통제

지상(지)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을 이용해 글로벌 호크의 이착륙을 정확하게 유도한다

오른쪽 사진은 표적 시설물을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 사진이 정밀하다

지상オペ레이터가 글로벌 호크의 카메라를 원격 조종한다

(Global Hawk의 성능)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하며,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 보유시설과 발사기지, 운반시설 등에 대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적 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나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 스스로의 다각적 노력이 요청된다. 여기서 우리 공군의 역할은 사활적이다. 북의 핵 또는 미사일 사용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핵 보유시설과 발사기지, 운반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과 대공미사일을 이용한 미사일요격은 공군의 고유 임무에 속한다. 공군의 F-15K와 F-16, F-15K 탑재 공대지 미사일 SLAM-ER, 그리고 현재 전력화 작업 중에 있는 48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요한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 수행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북의 대공망을 감안할 때, 전투기를 이용한 북의 핵시설 타격에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북의 지대공 미사일부대가 장거리 고고도 SA-5 미사일을 동·서부에, SA-2/3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일대, 동·서해안 및 평양권 방어를 위해 밀집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장비가 추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하 요새화한 미사일기지나 군 지휘소 등을 공격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항공 전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도입된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600여 개의 산탄이 터지는 방식으로 미사일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전투기 요격용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의 무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 전투기를 이용한 북한의 군사시설 선제공격, 패트리엇 미사일을 활용한 적극적 대공방어체계, 북의 군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찰·감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기능의 하이(High)급 전투기, 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PAC-3, 그리고 더 나아가 첨단 레이더와 광학카메라를 탑재한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의 도입과 정찰위성의 확보도 시급하다. 특히, 중심작전을 수행하는 공군은 중심지역의 표적정보와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자신호를 인공위성이나 글로벌 호크를 통해 수신하고 판독하는 플랫폼을 운영, 정확하고 신속한 항공 작전과 작전결과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군 구조 하에서 이러한 공군의 소요제기가 만족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군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정책적 주목과 세심한 배려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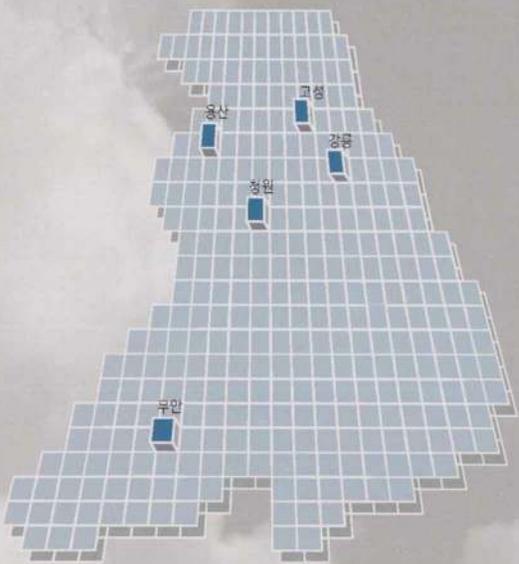
■ 문정인

- 연세대 교수
- 現 공군정책발전 자문위원
- 前 대통령 자문 국방발전위원회 위원

F-51 무스탕을 찾아서...



전남 무안에 전시된 F-51 무스탕



공군웹진 「공감」의 인기코너인 'Bout-1 그대에게'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기 대한민국 공군의 고군분투를 사실감 있게 그리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만화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비행 기종이 있으니 바로 F-51 무스탕이다.

1950년 7월 2일, 일본 이타츠케 기지로 파견되었던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F-51 전투기 10대를 이끌고 대구 기지로 도착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3일, 개전초기 상황이 불리했던 전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기지에서 첫 출격을 가졌다. 그런 연유로 지난 2008년 7월 3일을 「조종사의 날」로 선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F-51은 총 5대가 전국 곳곳에 역사자료로서 전시되어 국민들과 만나고 있다.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당연한 곳에 있는 것도 있었고 가우뿔할 정도로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도 있었다.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 60여 년의 세월동안 베일에 둘러싸여 있던 F-51에 담긴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위해 강원도 고성, 강릉, 전남 무안,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전쟁기념관을 향해 월간 「공군」, 「공감」 웹진 필진들은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맸다.

F-51 무스탕을 찾아서 ①

「신념(信念)의 조인(鳥人)」
그 자체인 공군 최초의 전투기를
찾아 나서다

강원도 고성과 강릉

글 대위 김동준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사진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북쪽 끝에서 F-51을 만나다

● 비가 와서 그런지 햇빛이 있는데도 날씨가 선선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계단 끝에 다다르니 드디어 F-51이 우리를 맞았다. 오랜 시간 달려와서 그런지 너무도 반가웠다. F-51은 전방 쪽이 높아서 그런지 언제 봐도 당당해 보이며 한편으로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조종하기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를 맞아 청초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 이곳의 무스탕 담당자를 만나 물어보니 이미 2주전부터 도색작업을 위해 업체까지 선정했지만 비가 왔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요상한 날씨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거란다. 조만간 도색 작업이 이뤄져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란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있는 무스탕도 어김없이 기수 쪽 측면에는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글귀가 까만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1950년 F-51 항공기를 미국으로부터 인수 받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직접 쓰셨다고 하니 새겨져 있다 보다는 쓰여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정확히 무슨 뜻일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조인(鳥人)'이라는 것은 '파일럿 또는 항공기 자체'를 뜻하고 있으며 '신념(信念)'은 '확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념'이란 단어 자체가 가진 뉘앙스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승의 신념을 가진 파일럿' 또는 '필승의 신념을 가진 항공기'가 적절할 것 같다. 통일전망대에서 보니 굳이 망원경이 없더라도 바로 눈앞에 북한 땅이 보였다. 우리나라 북쪽 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무스탕을 보니 마음이 오묘했다. 그리고 F-51도 마치 대치하듯 북한 쪽을 향해 고개를 뺨뺨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베트남 참전용사를 만나다

● 곳은 날씨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통일전망대에는 예상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통일전망대에 도착하면 우리만 쓸쓸하게 취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외의 장면에 약간 놀랐었다. 무스탕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한 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주인공은 우연하게도 베트남전에 공수특전단으로 참전하신 분이었는데 현재 부산에 거주하시는 63세의 이상열 씨였다. 무스탕이 어떤 항공기인지 아냐고 물



강릉에 전시된 F-51 무스탕

으니 공수부대라서 당시 공군의 C-46 등의 수송기는 많이 타봤는데 무스탕은 처음 본다고 하셨다. 하긴 이미 1957년에 퇴역한 항공기이니 공군도 아니고 항공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47년생이 모르는 것이 어찌면 당연했다. 그래도 공군이라고 무스탕 앞에 있는 팻말에 쓰는 설명에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을 추가해 그분에게 무스탕의 도입, 활약 등 역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드렸다. 열심히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조종한 항공기가 아님에도 웬지 공군임이, F-51이라는 항공기가 공군 것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빨간마후라의 고향인 강릉에는 당연히 있어야지 ● 다음날 다른 1대의 F-51 무스탕이 전시되어 있는 강릉을 찾아갔다. 잔디밭에 F-86 세이버, 정확하진 않지만 T-41 같은 항공기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도 여전히 새 도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번덕스런 날씨 때문에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 촬영도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비가 잠깐 그친 틈을 이용해 촬영했다. 이곳의 F-51은 비행단이라 그런지 통일전망대에 비해선 도장 상태가 양호했고 멋스럽게 여러 가지 무장이 장착되어 있었다. F-51은 1951년 9월 28일 강릉기지에 12대가 주둔하며 10월 1일부터 한국군 제1군단의 지상 작전 지원을 시작으로 10월 11일 역사적인 첫 단독출격인 원산작전에서 중공군 제68야전군과 북괴군 제2군단 후방지역의 주 보급로 무장정찰 및 공격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 10월 11일에는 한국공군의 첫 단독 출격작전을 시작으로 6·25전쟁이 휴전 될 때까지 108명의 조종사가 7,851회의 폭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UN공군이 500여회나 출격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평양 동쪽 승호리 철교 폭파를 한국공군 F-51 전폭기 11회 출격으로 폭파에 성공하는 등의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 기념으로 그리고 빨간마후라의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곳에 무스탕 1대가 있는 것이다. ㉠



고성 통일전망대에 전시된 F-51 무스탕

F-51 무스탕을 찾아서 ②

전남 무안과 공사

비운의 전쟁영웅 F-51 무스탕

글·사진 편집실

무스탕이 무안에? ●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F-51 무스탕이 전라남도 무안에 있다는 정보를 얻고 주저없이 나의 마음은 이미 무안을 향했다. 지리적 위치상 나의 고향인 광주에서 남쪽으로 30~40분 걸리는 곳에 위치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그 곳에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F-51 무스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게다가 그곳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다니, 놀라움에 연속이었다.

무안으로 가는 길 ● F-51 무스탕이 존재하는 곳은 무안호담항공우주박물관 야외전시장이었다. 광주에서 비교적 근 거리에 위치하여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점을 지녔다. 무안 기차역에서 걸어서 5분이란 정보를 입수, 자연스레 기차에 발을 던졌다.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역까지는 기차로 40분정도가 걸렸다. 초여름에 작렬하는 태양을 피하려는 피를 내어 일부러 오전시간을 택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하늘은 결코 내편이 아닌 듯 했다.

옥만호 前 공군참모총장과 항공우주박물관 ●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찾아 가는 동안 국내에 5대뿐인 F-51 무스탕이 왜 하필 무안에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F-51 무스탕과 관련되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안에 공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설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공군 제12대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옥만호(예)장군으로부터 풀려가기 시작했다.

1927년 일제강점기 무안에서 태어났던 옥만호 장군은 1950년 공군사관학교(소집2기)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조종사가 됐다. 6·25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에이스로 평양대공습 등 134회나 출격해 출중한 조종솜씨를 인정받았다. 특히 나공불락을 자랑하던 승호리철교 폭파 작전에도 참여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74년 약 3년간의 공군참모총장직을 수행하고 공군을 떠나게 된다.

이후 고향인 무안으로 돌아온 그는 어린시절 자신의 꿈에 대한 기억이 묻어있는 고향에 자신의 사재 13억원을 털어 항공우주박물관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명칭을 자신의 고향과 호를 사용 무안호담항공우주전시장으로 결정하였다.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해놓은 전시물들이 입구 쪽을 가득 매



있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가 해왔던 노력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의 분출구인 우주를 테마로 한 전시관들이 차례로 마련되어 있었다. 거기에 옥만호 장군의 재임당시 사진, 착용했던 재복 등 공군에 몸담고 있을 간직하고 있었던 소장품 등 총 913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을 관리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스탕과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들었다. 6·25전쟁 당시 정비사였던 관람객이 방문하여 들려준 이야기인데 옥만호 장군이 F-51 무스탕을 이끌고 출격을 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귀환하여 착륙을 시도하는데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전개될 뻔 했던 상황을 옥만호 장군이 침착하게 대응하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지금이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모두가 얼마나 아찔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F-51 무스탕의 꿈 ● 항공우주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야외전시장에는 총 12대의 실물비행기가 있었다. 그 사이에 지금껏 그토록 찾았던 F-51 무스탕이 있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위치 F-51 무스탕에 대한 첫인상은 다른 비행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몸집과 오랜 세월의 굴곡을 담고 있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F-51 무스탕의 혁혁한 전과는 그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대의 격변기속에서 비운의 운명을 타고난 전쟁영웅의 모습이 F-51 무스탕과 닮아있다. 6·25전쟁 당시 위용을 떨쳤던 옛 모습은 비록 지금 사라졌지만, 낡은 기체와 갈라진 바퀴틈새 사이에서 하나된 조국의 하늘을 누비고 싶은 F-51 무스탕의 꿈이 느껴졌다.

다른 날을 택하여 찾아간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F-51 무스탕은 1979년 4월 7일 1전비로부터 인도를 받아 당시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 있다가 1985년 10월 1일 지금의 자리로 또 다시 옮겨졌다고 한다. 아쉽게도 이외의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항공기의 운용기록에 관련된 역사를 추적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벌인다고 한다. 베일에 가려진 F-51 무스탕에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조만간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해본다. ㉙

공사에 전시된 F-51 무스탕



구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1	1	1	1
2	2	2	2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16
17	17	17	17
18	18	18	18
19	19	19	19
20	20	20	20
21	21	21	21
22	22	22	22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25	25
26	26	26	26
27	27	27	27
28	28	28	28
29	29	29	29
30	30	30	30
31	31	31	31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34	34
35	35	35	35
36	36	36	36
37	37	37	37
38	38	38	38
39	39	39	39
40	40	40	40
41	41	41	41
42	42	42	42
43	43	43	43
44	44	44	44
45	45	45	45
46	46	46	46
47	47	47	47
48	48	48	48
49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51
52	52	52	52
53	53	53	53
54	54	54	54
55	55	55	55
56	56	56	56
57	57	57	57
58	58	58	58
59	59	59	59
60	60	60	60
61	61	61	61
62	62	62	62
63	63	63	63
64	64	64	64
65	65	65	65
66	66	66	66
67	67	67	67
68	68	68	68
69	69	69	69
70	70	70	70
71	71	71	71
72	72	72	72
73	73	73	73
74	74	74	74
75	75	75	75
76	76	76	76
77	77	77	77
78	78	78	78
79	79	79	79
80	80	80	80
81	81	81	81
82	82	82	82
83	83	83	83
84	84	84	84
85	85	85	85
86	86	86	86
87	87	87	87
88	88	88	88
89	89	89	89
90	90	90	90
91	91	91	91
92	92	92	92
93	93	93	93
94	94	94	94
95	95	95	95
96	96	96	96
97	97	97	97
98	98	98	98
99	99	99	99
100	100	100	100

F-51 무스탕을 찾아서 ③

역사를 기억하라

전쟁기념관

원고정리 소령 리동섭 | 공군본부 문홍과 사진 김경률 | 공군본부 공보과

F-51이 전시되어 있는 다섯 군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바로 전쟁기념관이다. 여름의 문턱이 들어선 6월, 평일 점심시간 직후의 맑고 끈적끈적한 햇살이 가득한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관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람객이 많았다. 가까운 삼각지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걸어서 불과 5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까지 순식간에 말려 버릴 것만 같은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전시장까지 어린 학생들과 인솔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호국보훈의 달, 특히 6·25가 있는 주간이라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가 필요해서 찾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체 관람객들인 듯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옮겨 다니고 있었고, 군데군데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한 단체복을 입은 그룹도 쉽게 눈에 띄었다.

남산 바로 아래자락, 연건평 2만5천 평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전쟁기념관은 인근에 국방부와 연합사령부가 있어 지리적 접근성은 물론 상징성도 높다. F-51 무스탕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 대형 장비실에는 6·25 전쟁에 사용되었던 아군과 적군의 항공기는 물론 각종 전차, 화포 등 대형 전투장비와 6·25전쟁 이후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한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온통 검은색 또는 검붉은 색의 대형 금속 조형물과 위장 도색이 깔끔하게 칠해진 무기들로 가득 들어차서인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따가운 햇살에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은 웬지 어두침침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서인지 태극마크와 항공기 일련번호는 멀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이고, 날렵한 곡선이 유독 다른 전시물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마치 연료탱크를 채워주면 당장이라도 날아올라 기수 좌측면에 새겨져 있는 “信念의 鳥人”이 어떤 의미인지 눈앞에서 보여줄 것만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전시물들과는 달리 검붉은 색의 Nose Cone과 노란 색의 프로펠러 팁을 가진 F-51 무스탕은 동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생함이 잘 살아 놓아 날이 바짝 선 장검의 그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본 무스탕의 풍모는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빨간색 가방을 등에 둘러 멘 한 무리의 유치원생들이 자신의 사진 찍을 순서를 기다리며 길 어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인솔자로 보이는 20대의 여선생님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OO이, 여기 보고, 자! 찍는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돌씩 찍을 지은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감흥 없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예의 “V자”를 그리며 무스탕 앞에서 차례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무수히 쏟아지는 포화를 뚫고 급강하하며 로켓과 기총으로, 때로는 폭탄으로 맹공을 퍼부었던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그런 엔진음을 뒤에 남기며 하늘로 치솟던 무스탕은 이제 다시는 랜딩기어를 접지 못한다는 슬픔에 발톱과 이빨을 감춘 늙은 사자처럼 조용히 앉아 아이들의 기념사진 배경이 되어 주고 있었다. 하지만 두텁게 덧칠해진 페인트 아래에는 분명히 무수히 쏟아낸 기총의 거친 흔적이 남아 있다. 마치 오래 전 전쟁영웅의 동상처럼 후손들에게 짙은 화약 연기 냄새를 안쪽 깊숙한 곳에 품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서 “역사를 기억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㉞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F-51 무스탕



7파운드 살점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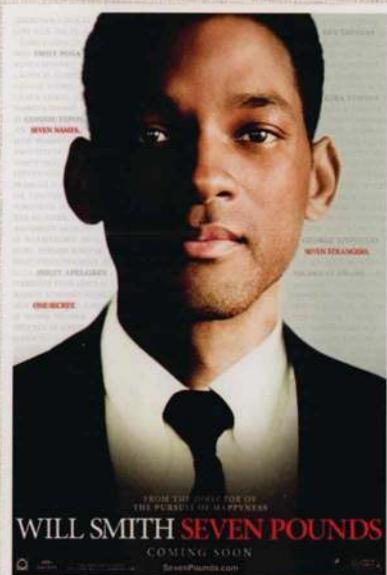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단어 타이틀매치〉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했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Seven Pounds의 의미는?

영화 〈세븐 파운드스〉(Seven Pounds)는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iness)를 감독한 가브리엘 무치노가 월 스미스와 몽처 만든 신작이지요. 그런데 제목 'Seven Pounds'는 무슨 뜻일까요? 영국 화폐 7파운드란 뜻일까요? 아니면 무게의 단위인 그 파운드? 혹시 'Seven Pounds'가 7파운드만큼의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우선 개략적인 줄거리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왜 장기를 기증하려는 걸까?

주인공 벤(월 스미스 분)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직원입니다. 영화는 그가 자살계획을 911에 신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암전! 화면이 밝아지면 벤은 2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에겐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살을 결심하기 전까지 2년 동안 벤은 여러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합니다. 'organ donation' 이라고 하지요. 장기를 기증받을 후보자의 정보는 모두 그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빼낸 것입니다. 벤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착하고 모두 성실하게 산다는 것!

약혼녀의 환영이 왜 보이는 걸까?

그런 과정에서 벤은 홀로 사는 에밀리 포사(로사리오 도슨 분)와 사랑에 빠집니다. 뜻하지 않은 운명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녀에게서 죽은 약혼자의 모습을 발견한 걸까요? 그녀와 다정히 있을 때면 벤은 환영처럼 나타나는 약혼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벤은 에밀리가 희귀 혈액형을 가진 심장병 환자이며, 심장을 기증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밀리와 함께 처음 밤을 보낸 후 벤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벤의 본명은 팀이며, 국세청 직원인 동생의 이름이 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팀은 MIT 공대를 나온 항공기 엔지니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벤은 왜 일곱 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걸까요?

〈대부〉와 〈세븐〉에 담긴 힌트

이미 짐작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제목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약간의 위밍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 〈대부〉(The Godfather)의 원작소설에는 고리대금업자(loan sharks, moneylender)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들은 샤일록(Shylock)이라고 불립니다. 범죄영화 〈세븐〉(Se7en)의 한 연쇄살인 피해자는 스스로 1파운드의 살점(a pound of flesh)을 도려내고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와 〈세븐〉은 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의 설정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Seven Pounds'의 뜻도 실은 두 영화처럼 〈베니스의 상인〉에 빚지고 있지요.

'Seven Pounds' 와 <베니스의 상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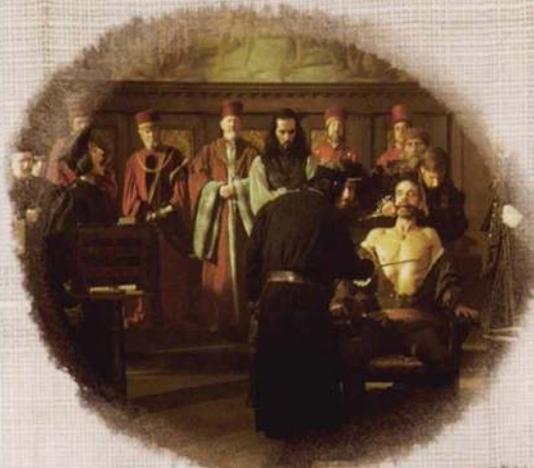
베니스의 부유한 상속녀인 미녀 포샤는 청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샤는 이미 한 청년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바사니오라는 이름의 베니스 청년입니다. 문제는 그가 쟁쟁한 후보자들과 달리 재력을 못 갖추었다는 것! 다행스럽게도 바사니오에게 둘도 없는 친구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여러 대의 함선으로 무역을 하는 안토니오는 친구를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전 재산을 무역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안토니오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찾아가습니다. 평소 안토니오와는 원수지간이었던 샤일록은 바사니오가 필요한 3천 더킷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단서를 답니다.

“이건 장난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만약 증서에 명시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때, 일정한 장소에서 갚지 못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렉의 기름진 살을 꼭 1파운드만 내 마음대로 어디서나 베어내기로 하면 어떻겠소? In a merry sport, if you repay me not on such a day, in such a place, such sum or sums as are expressed in the condition, let the forfeit be nominated for an equal pound of your fair flesh, to be cut off and taken in what part of your body pleaseth me.”

“피는 한 방울도 건드리지 말고 살점만...”

바사니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는 배만 돌아오면 보란 듯이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덕분에 바사니오는 포샤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소식이 당도하지요.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하였다는 소문이 베니스에 파다하게 퍼지고, 샤일록은 쾌재를 부르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샤일록은 기세등등하게 차용증서를 들이밀며 1파운드의 살점을 도려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법관 벨터자가 현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벨터자는 남자로 변장한 포샤입니다.

“증서대로 살 1파운드를 베어가지요. 그러나 베어낼 때 만약 그리스도 교도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이면, 당신의 토지 및 재산은 베니스의 국법에 의하여 이 베니스 국에 몰수당하오.



This bond doth give thee here no jot of blood; the words expressly are a bound of flesh: Take then thy bond, take thou thy pound of flesh; But, in the cutting, if thou dost shed one drop of Christian blood, thy lands and goods are, by the laws of Venice, confiscate unto the state of Venice.”

'7 파운드의 장기'를 기증하다

결국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커녕 원금까지 몽땅 포기하고 법정을 나서려 합니다. 그러나 제지당합니다. 베니스의 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노렸다는 게 판명나면 가해자의 재산의 절반이 피해자에게, 그 나머지 절반이 국고로 몰수된다는 걸 벨터자 법관(변장한 포샤)이 상기시켰던 것이지요.

이렇듯 'Seven Pounds'는 'seven pounds of flesh'의 줄임말입니다. 영화에서 탐이 일곱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7파운드의 살점'이란 곧 일곱 개의 장기를 뜻하는 것이지요. ④



New! New!! New!!!

진화하는 항공우주의료원

편집실 사인 김윤해 | 사진작가

2008년 4월, 우주로 향하는 소유즈 우주선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세계 36번째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탄생했던 그 순간, 그 용어조차 생소했던 우주인이란 개념에서부터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모든 언론매체에서는 특종을 놓칠세라 앞 다퉈서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우주인 양성 전문기관이었던 항공우주의료원(이하 항의원)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 역시 이 무렵이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적응성과 생존능력을 검증하고 증진시키는 항공생리훈련은 국내에선 오로지 항의원만이 그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과 항공생리훈련으로 대표되던 항의원에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군 병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군 내외적으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질 높은 의료수준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 복지 및 보건환경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군의 주요전투인력인 공중근무자를 위한 건강관리센터는 공군 병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실현하는 기관인 항의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항공우주군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고 더불어 복지증진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발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수요자입장에서 접근하여 단 1%의 부족함도 없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외래코디네이터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낯은 병실에 의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무 기력한 환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군 병원의 병실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한 항의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 본다.

건강한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센터

신설 배경

기존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체계적인 공중근무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항의원과 각 비행단 간의 신검수준에 차이가 발생했고, 항공생리훈련과 연계하여 정밀신검이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밀신검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일률적인 신체검사 항목운영으로 개인별 특성(연령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신체검사 주기 및 신체검사 항목 비교)

신 검 주 기	신 검 항 목	
	비 행 단	항 의 원
정기신검 : 소속부대 / 매년	흉부 x-ray외 20여 항목	복부초음파 외 총 60여 항목
항생정밀 신검 : 항의원 / 3년 * 관리자과정 : 항의원 / 5년		



실제로 신체검사를 받는 공중근무자들은 비행적성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항생정밀신검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행적성 평가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향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족동반 건강검진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신검을 실시하는 의무분야 내부적으로는 부대 간 개인 건강관리체계와 연계가 미흡하여 진료의 연속성에 제한이 있었고, 비행단 신체검사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반면, 생활 습관병(고혈압, 당뇨 등)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내·외적인 의료서비스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고, 공중근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체검사를 위해 비행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중앙 집중적인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세부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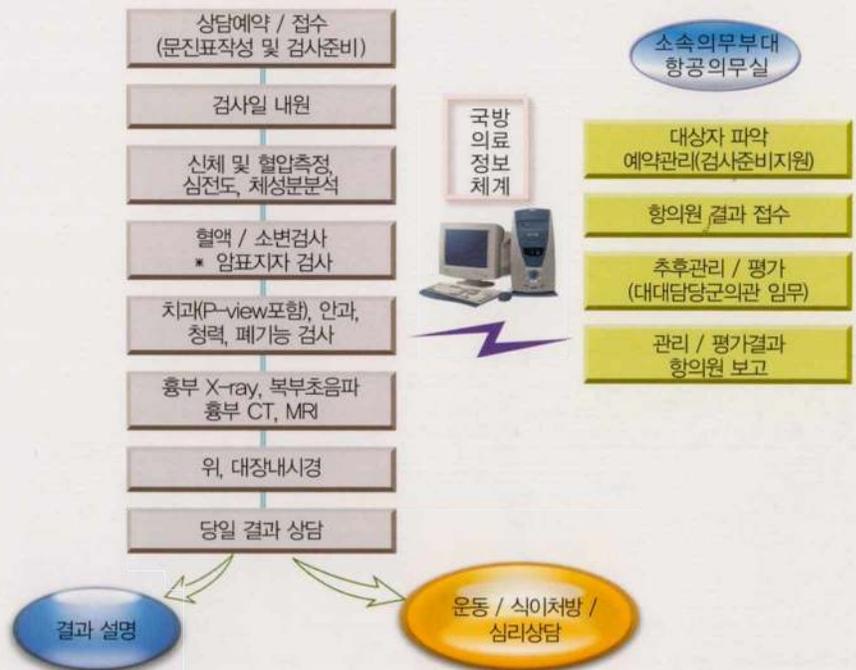
'09년 6월 1일부로 신설된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센터는 공중근무자들에 대해 연령대별 위험인자를 고려한 정기적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검 대상을 5개(비행입과 대상자, 일선 조종사, 행정직 조종사, 예비역, 공중근무자 배우자)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질환을 신체검사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공중근무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를 유도해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중근무자에 대해 대상자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시기 적절한 건강관리를 차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 결과, 기존의 일률적인 검사항목 지정을 보완하게 되었고 공중근무자의 Life Cycle과 Career Track에 맞는 관리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 까지 공중근무자들의 평생 건강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 상	관 리 목 표	핵 심 내 용	비 고
비행입과 대상자	과학적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의 자원선발 및 관리 건강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검항목의 대상별 차별화 신검주기 조정
일선 조종사	효율적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중심 건강관리 질병조기 진단 	
행정직 조종사	적극적 질병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진단 및 적극적 질병치료 생활습관병 및 악성질환 집중관리 	
예 비 역	지속적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질환 집중관리 	
공중근무자 배우자	가족 동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 연령대별 차별화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공중근무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공중근무자 가족동반 검진도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에 포함시켰다. 공중근무자 배우자들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검사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건강지식 습득과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중근무자들도 근무하면서 느끼는 미안함을 배우자 동반검진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제도(규정)를 개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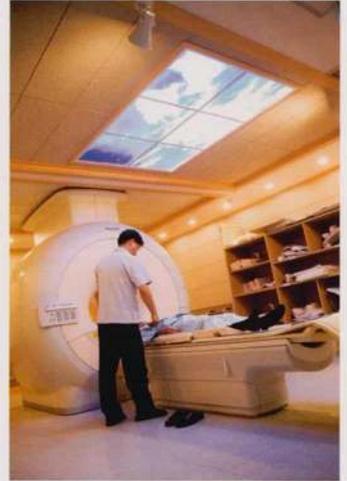
건강관리센터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건강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진료기관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방의무와 초기발견을 통해 공중근무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고자 항의원과 비행단 소속의무부대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피드백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오른쪽 표 참조)



공중근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은 소속의무부대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검사 예약접수를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 후 건강관리센터는 예약확인 후 접수를 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공중근무자 개개인에게 SMS를 통해 신체검사 날짜를 알린다. 예약된 검사일에 건강관리센터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상담군 의관과 상담을 통해 검사결과를 확인, 개인별 영양 및 운동처방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는 종료가 된다. 만약 검사결과 이상소견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의무부대와 자료가 공유되어 각 비행단 의무대에서 지속적 관리가 실시되고 주기적 관리 및 평가내용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항의원과 예하부대가 공중근무자에 대한 상호보완적이고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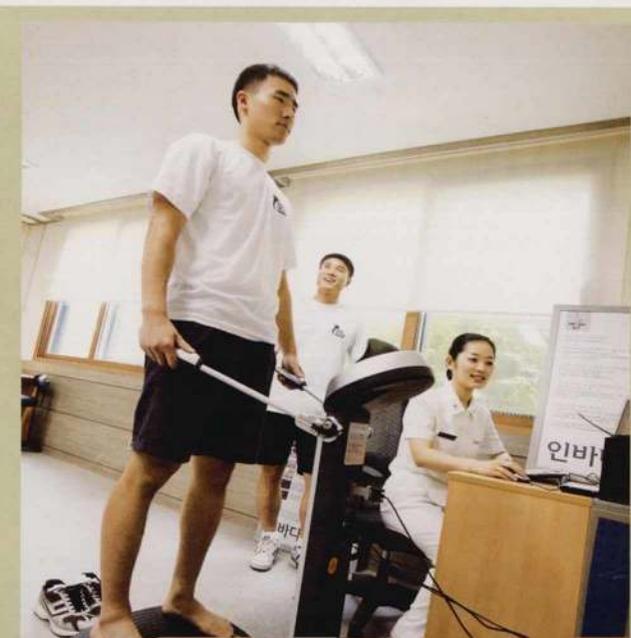
기대효과

먼저 공중근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중근무자와 의무부대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검사나 비행적성기준을 과학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중근무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군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가족 건강검진제도가 실시되면, 공중근무자들의 복지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근무자 유출방지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항의원을 전문센터로, 그리고 각 비행단 소속 의무부대는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부대별로 특수성 있는 진료능력을 강화시켜 경쟁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군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와 함께 호흡하려는 발걸음, 외래 코디네이터 제도

최근 리모델링(Remodeling)을 마친 항의원에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이 있다.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외래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원코디네이터는 1994년 미국 병원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도입된 신직종으로 2000년 이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고객만족 경영을 구현하고 있다. 항의원에서는 최근 하드웨어 개선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변화로써 내원환자를 포함한 의료대상자에게 감동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소위 '외래환자를 돌보는 관점에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표로 항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객이 접촉하는 고객접점(Moment of Truth) 관리가 변화하는 항의원의 모습이다. 간호부장인 백숙교 중령의 말에 따르면 MOT란 원래 투우에서 투우사가 긴 창으로 투우의 급소를 내리찍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고객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서 서비스를 크게 강화해야만 전체적인 질 향상의 만족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항의원을 찾는 환자가 원무과에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진료를 마치는 매 순간마다 환자들이 항의원과 함께한다고 느낄수 있게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외래코디네이터 간호장교의 활동은 외래 의료 인력들과의 주기적인 워크숍 및 외부병원의 코디네이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료 소비자들에게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검사안내, 불만족 관리, 의무요원 친절서비스 교육, 건강관련 세미나, 병원이미지 개선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의 날' 이벤트 행사, 금연을 비롯한 비만, 운동, 영양상담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즐거운 항의원 병동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병동에 치료를 위해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장교의 모습엔 웃음이 가득하다. 입원환자들을 기절시키는 감동을 주기 위해 병동 스테이션 주위에는 싱그러운 녹색식물들을 조성하여 웰빙 그린공간으로 조성하였고, 환자들이 부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pc도 갖추어 놓았으며 특히 공사생도들을 위한 생도병실은 인터넷교육망도 구축해 놓았다. 항의원 정밀검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검진일 전날 저녁에는 병실을 제공하여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및 안정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입원환자 정양프로그램으로서 '웰빙비누 만들기' 를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건강에 대한 재인식과 건강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병실 선임간호장교를 맡고 있는 박태경 대위는 "병사가 입원할 경우에는 보호자들에게 SMS 문자전송을 하여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퇴원시에는 소속부대 참모에게 퇴원환자정보지(병원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를 기록함)를 송부해서 퇴원 후의 건강관리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다"며 환자들은 화려한 의료서비스보다는 친절을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외부병원에서 무릎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최근에 항의원에 입원한 29전대 박병중 준위는 "외부병원에 비해서 깔끔하고 조용한 환경에 편의시설도 잘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서비스가 좋으며 34년 군생활 중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항의원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항의원 내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한창 진행중이다. 공군의 대표적인 군병원으로서 타 군과 차별화되는 공중근무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센터>, 친절과 미소로 무장하여 병원 서비스의 극한을 보여주려는 <외래코디네이터> 제도,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새 단장한 병동>의 모습에서 군 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㉞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원고장미 편집실 사진 상사 고태호

이등병이 쓴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메일함에 도착한 편지를 확인해보니 발신은 평소처럼 이등병인데 수신 역시 이등병? 이건 뭐지? 라는 호기심으로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대배치를 받고 난 후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달고 있어야 하는 이등병 계급장. 왼쪽 상의 포켓에 달린 달랑 작대기 하나는 그가 가진 지위마냥 볼품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길어야 2개월 차이가 전부인 그들 사이에도 엄연히 기수와

전입날짜로 인해 위계서열이 매겨지고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진다.

그러나 이등병이라는 동일한 계급에서 서로 느낄 수 있는 동질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푸념들은 그들 사이에 촉매제가 되고 그냥 저장 또 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등병이 이등병에게 쓰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던 복지단에서 <이등병이 쓴다> 제10호점이 탄생하였다. ㉠

금강산 이병님께

필승!

복지단에 막 배치 받아서는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더니 어느덧 초여름 느낌이 완연합니다. 이등병인지라 평소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이런 좋은 기회로 편지에 담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실 제가 공군에 지원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공군에 복무하고 계신 것도 물론 있지만 '공군은 편하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강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지 훈련소에서는 '6주 만 버티면 된다'. 특기학교에 가서도 '자대만 가면 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대 배치를 받아 막내로서 생활을 시작해 보니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적응하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항상 내무실 앞에서 동기들과 함께 스스로없이 지내 오다가 갑자기 많은 선임 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니 눈치도 보이고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많이 힘들지? 막내 때는 원래 그런 거야. 누구나 거쳐 온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 라고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도 자신도 이병이라 여기 저기 할 일이 많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 내서 '이건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 때는 누구나 저와 같은 상황을 거쳤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군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점호 후에 둘이 같이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낮에 못 웃었던 웃음 많이 웃으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기분 좋게 잠들어 다음날에 힘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 저도 언젠가 후임병을 받아 자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시기가 올 텐데,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처럼 후임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와 기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앞으로 대부분의 군 생활을 서로 보면서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즐겁게 지내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산 이병님 감사합니다.

필승!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 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

더운 여름! 스킨만으로 피부관리 끝~♪

꽤 오래 전 얘기지만 모델 전지현의 긴머리가 찰랑거리며 등장하는 파란색의 스킨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라는 카피로 유명했던 '라네즈 파워 에센셜 스킨'은 2006년에 한 해 동안만 52만개나 팔렸는데 이를 계산하면 20초에 1개씩 팔린 셈이다. (경제신문 기사) 이 제품은 지금도 라네즈(Laneige)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손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게다가 스킨의 힘을 믿으라는 이 카피 역시 무시 못할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와 같이 자체 피지가 많아 보습제가 부담스러운 피부에게는 스킨에 함유된 보습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스킨 하나만 잘 사도 성공한 화장품 쇼핑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여드름 피부라면 두말할 것 없이 보습제

사용을 피해야 하므로 스킨만으로 피부관리를 끝내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스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스킨'은 콩글리시

사실 '스킨'이란 명칭은 피부(Skin)라는 영어 단어이나 우리나라에서만 '화장수(化粧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아마 '스킨로션(Skin Lotion)'과 '밀크로션(Milk Lotion)'을 한번에 부르기 위해 '스킨로션'에서는 '로션'이, '밀크로션'에서는 '밀크'가 각각 생략되어 '화장수'는 '스킨'으로, '보습제'는 '로션'으로 부르는 것 같다. 본래는 유액의 보습제(保濕劑)로 알고 있는 '로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수'라는 품목이지 않다. 화장품 대국인 미국, 유럽, 일

본 등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화장수'를 '스킨'으로 부르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화장수를 지칭하고 싶다면 '토너'나 '로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결국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는 조금 우스운 표현이고, '로션의 힘을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적절할 것이다. 이 로션은 또 다른 말로 토너(Toner)라고도 불리는데 필자는 스킨토너(Skin Toner)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스킨토너라고 말하는 것이 이 품목의 의미를 더욱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스킨토너의 종류에는 토너(Toner), 로션(Lotion), 에프터쉐이브(Aftershave), 클래리파잉(Clarifying), 아스트린젠트(Astringent), 미스트(Mist), 프레셔너(Freshener), 소프트너(Softner)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스킨토너의 종류

- * **토너(Toner), 로션(Lotion)** - 일반적인 화장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미백 화장수'의 경우 '화이트닝 토너'나 '화이트닝 로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 **에프터셰이브(Aftershave)** - 면도 후에 사용하는 스킨토너로 다량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독 효과가 우수하지만 물 속 알코올 함유량이 70%일 때 소독력을 발휘합니다. 스킨토너에 들어있는 10~20% 함유량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도 없고 피부만 심각하게 자극시킬 뿐입니다. 에프터셰이브 로션을 선택할 때는 알코올 성분이 적고, 진성 성분(알라토인, 비자볼롤, 카모마일, 아줄렌 등)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클래리파이잉(Clarifying)** - 지성, 여드름 피부가 주로 사용하는 스킨토너로 '에프터셰이브' 처럼 알코올이나 멘톨, 페퍼민트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선사하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아스트린젠트(Astringent)** - 모공 수렴을 위한 스킨토너로 피부를 일시적으로 긴장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린젠트로 모공을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 단순히 피부를 말리는데 그치게 되어 건성피부가 사용할 경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고, 반대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가 사용할 경우 오히려 왕성한 피지 분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미스트(Mist)** - 일반적인 스킨토너를 스프레이 통에 넣어놓은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고정시키거나, 건조한 실내에서 분사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킨토너입니다.
- * **프레셔너(Freshener)** - 클래리파이잉, 아스트린젠트와 비슷한 스킨토너로 지성, 여드름 피부가 주로 사용하는 산뜻한 타입의 스킨토너입니다.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어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너에도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진성분표'를 보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 **소프트너(Softner)** - 다량의 유분과 보습 성분을 함유하는 스킨토너로 건성 피부와 복합성 피부에 알맞습니다. 매우 걸쭉한 타입으로 스킨토너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로션에 가까운 질감입니다. 지성 피부라도 건조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렌징의 연장선

우리가 이러한 스킨토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안제(Cleanser)로 다 지워내지 못한 메이크업 찌꺼기나 노폐물 제거, 피부결 정돈, 가벼운 수분 공급을 위해서이다. 결국 기초화장의 시작이 아닌 클렌징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다. 그렇다면 잠깐! 물(Water)이 95% 이상 차지하는 이런 스킨토너를 손으로 바르는 남성들에게 과연 스킨토너가 필요할까? 정답은 엑스! 화장솜을 이용하여 닦아내지 않을 거라

면 맹물을 떠다가 바르는 것이나 스킨토너를 바르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화장솜으로 쓰세요

스킨토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화장솜이나 코튼(Cotton)에 적당량 묻혀 피부결대로 닦아내듯 발라주어야 한다. 화장솜을 통해 바르게 되면 스킨토너가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리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낭비되는 소모량이 적다. 스킨을 손으로 바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바닥에 흘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얗게 뜨던 각질들이 화장솜에 노랗게 묻어나오므로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욱 청결하고 효율적이다. 이처럼 화장솜을 이용하여 스킨토너를 바를 것이 아니라면 스킨토너를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반드시 챙겨야 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Must Have Item)이 '화장솜'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게다가 화장솜의 가격은? 100매에 1천원밖에 안하니 그 어느 것보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㉞



피부결은 이마의 경우 가로로 나있으며, 양 뺨은 코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나있다. 화장솜에 스킨토너를 묻혀 닦아내듯 발라줄 때는 이마는 좌우로, 뺨과 턱은 각각 코를 기준으로 뺨에서 귀 방향으로, 턱 아래에서 목 위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닦아내면서 발라준다.



네이버 블로그에 '화장품 골라주는 남자'로 알려진 정인 상병은 수백 개에 달하는 화장품 테스터, 리뷰어, 각종 브랜드 홍보 대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장병들의 피부관리를 돕고자 30단 웹 매거진 <천리안>에 뷰티칼럼을 연재 중에 있다.

Hot SKETCH



◎ 무궁화회의의 지휘관 간담회

참모총장은 6월 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 당신의 Bucket List는? 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통해 참모총장의 인생철학과 향후 군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강조하여 참석한 장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 日 항공마료감부 장비부장 접견

참모총장은 6월 3일 제7차 한·일 공군 군수관리자 회의 참석을 위해 訪韓한 일본 항공마료감부 장비부장 후쿠이 마사아키(FUKUI Masaaki) 소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간 군수분야 교류 증진은 물론 우호관계 및 군사적 신뢰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독일 군사외교활동

참모총장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참모총장은 싱가포르 공군참모총장 님 쨌 켄(NG Chee Khern) 소장, 독일 공군참모총장 클라우스 피터 스티그리쯔(Klaus Peter Stieglitz) 중장을 만나 국산훈련기의 우수한 성능과 선진 비행교육체계의 효과를 홍보하고, 10월 개최하는 서울에어쇼(ADEX 2009)에 공식 초청했다. 특히 참모총장은 싱가포르가 신규도입할 고등훈련기 기종을 올해 결정하는 만큼 T-50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T-50을 도입할 경우 "한국 공군은 조종사 수탁교육, 후속군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참모총장은 6월 29일부터는 독일을 방문해 패트리엇 도입에 따른 후속군수지원과 독일의 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대전국립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6월 6일 공군본부 참모 및 공군본부 지역 직할 부대장, 신분별 대표 등 40여명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 참모총장은 호국영령들의崇高한 뜻을 기리며,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정예화된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 빨라진다

- 군수사령부, 美 수송사령부와 상호 공수지원절차 마련

글·사진 군수사령부 정훈공보실



1

유사시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을 위한 한·미간의 공수지원 절차가 개선되어 미군의 한반도 전개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와 미군 수송사령부는 최근 개최된 한미 공수근무지원회의를 통해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이 원활하도록 상호 지원하기 위한 연합 공수근무지원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 우발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상호간의 장비와 인력을 즉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대규모의 미군 병력과 장비, 물자 이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 공수취급자간의 상호 교환근무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구 기지와 오산 미군기지의 공수취급소에서 한미 공군의 교환 합동근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상조업장비도 한층 보강된다.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3만5천 파운드 카고로더(35K Cargo Loader, 화물적재기)와 미군의 차세대급 2만5천 파운드 화물적재기 25K NGSL(Next Generation Small Loader), 6만 파운드 화물적재기인 60K 카고로더 등 최신예 화물적재기의 운용을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관한 60수송전대장 이명길 대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항공수송 담당자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한미 연합공수지원업무가 대폭 개선되어 유사시 미군들의 한반도 전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는 이번 한미 공수근무지원회의에서도 출된 결과를 토대로 양국 공수취급자들의 교환근무를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실무협의를 거친 후 오는 11월 최종 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



2

1.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연합 공수근무지원 절차에 합의한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장 이명길 대령과 미 수송사령부 731 AMS(Air Mobility Squadron, 항공수송대) 대대장이 회의 후 양국 실무자들과 함께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다짐했다.
2. 이번에 소개된 첨단 화물적재기 25K NGSL(Next Generation Small Loader)과 6만 파운드급 화물적재기인 60K 카고로더(우측 장비).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5K 카고로더와 더불어 한미 연합공수지원의 주역을 맡게 될 장비들이다.

代 이어 한국 지키는 美 공군장병들

- 작전사령부, 6·25 참전 美 용사 가족 35명 초청

글·사진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작전사령부는 6월 18일 6·25전쟁 59주년을 맞아 오산기지에 근무하는 美 공군 장병들 가운데 6·25 참전용사의 가족 35명을 초청, 격려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작전사령부가 참전용사들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美 장병 대상 6·25 참전용사 가족 격려행사'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의 뒤를 이어 한국을 지키고 있는 참전용사 가족 35명이 초청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브루스 게스트(Bruce Guest, 32세) 대위는 美 7공군 정찰대대 소속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 게스트 대위의 조부인 월터 브루스 게스트(Walter Bruce Guest, 대위 전역, 1990년 사망) 씨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한 베테랑 조종사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비행대대 정보장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게스트 대위는 집안의 전통에 따라 공군에 입대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정찰기의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업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극도로 아끼셨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경외에 가까운 존경심으로 그를 대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철두철미한 군인정신이 현재의 나 자신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美 7공군사령부 현병대 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프리 브라이언트(Jeffery H. Bryant, 47세) 원사는 한국과의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다. 그의 아버지인 얼비 브라이언트(Irby Bryant, 일병 제대, 1999년 사망) 씨는 6·25전쟁 당시 공군 현병으로 참전하였고, 그의 삼촌인 주니어 브라이언트(Junior Bryant, 실종)와 이모부인 로버트 우즈(Robert Woods, 상병 제대, 생존)는 미군 보병으로 활약하였다.

브라이언트 원사 또한 아버지,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1988년 병장으로 오산기지에서 현병으로 복무하며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래, 25년에 이르는 군생활의 마지막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다.

작전사령부 사령관 오창환 중장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희생자는 1,2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은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상기시킨다. 선대의 희생을 잊지 않고 다시 한국을 찾아와 평화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미 공군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행사에 참가한 미군장병들을 격려했다. ㉿



1



2

1. 브루스 게스트 대위
2. 제프리 브라이언트 원사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8전비, 비행단 양심자전거 수리 완성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6월 1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실전을 위해서 비행단내 폐기,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하여 양심자전거를 만들었다. 새롭게 완성된 자전거는 부대내 곳곳에서 양심자전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 제20전비, 해동청배 용성리그 축구 결승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6월 9일 대연병장에서 해동청배 축구 용성리그 결승전이 열려 시설대대, 군수전대/보급대대, 야대, 정통대대가 각각 우승, 준우승, 3, 4위로 상금 및 트로피 등을 수상하였다.



◎ 항안단, 새로운 기법으로의 안전관리 재조형

항공안전관리단은 6월 4일 공군회관에서 '신(新) 안전문화 창출을 위한 안전관리 재조형(Reshaping)'을 주제로 '09년도 공군항공안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군항공안전세미나는 항공 및 안전관련 학계와 정부 출연연구소, 공공 기관, 관련 업체 전문가 100여명과 공군 및 육·해군 항공안전 관련 요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 교육사 향과고, 제주도 국토순례

항공과학교 3학년 학생(169명)은 지난 6월 15일에서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제주도를 탐방하며 청소년기 올바른 인성 및 조국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국토순례를 통하여 호연지기 및 조국애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한라산 등반활동을 통한 극기심 및 자신감을 배양하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자연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였다.



◎ 5비 259대대, 의무전대 명례리 대민지원활동

제5전술공수비행단 259비행대대와 항공의무전대가 6월 12일 농촌 마을에서 일손 돕기 및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259대대와 항의전대는 경남 밀양시 명례리 일대에서 약 4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농민들의 감자 수확을 돕고, 한방, 가정의학 진료 서비스를 펼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로 힘을 쏟았다.

2009 July



◎ 제10전비, 韓·美 연합 6·25 기념행사

6월 24일, 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과 함께 6·25 기념행사를 가졌다. 6·25 전쟁 발발 59주년을 기리고 조국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한·미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 우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 제16전비,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제16전투비행단에서는 6월 5일 제14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사랑 실천 의식 제고와 환경 마인드를 확산시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잘 사는 쾌적한 Green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부대 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 공사, 제2회 성무철인경기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6월 10일, 사관생도들을 강한전사로 육성하기 위한 '제2회 성무철인경기'를 부대 내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총 56명(여생도 4명)이 출전한 올해 참가자들은 '철인' 칭호를 얻기 위해 50m 수영장을 12회 왕복한 후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3.4km를 뛰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군장해제 후 6km의 산악구보를 완주해야만 한다. 이날 1등을 한 3학년 정서인 생도는 총 10km의 코스를 1시간 34분에 완주하였고, 여생도 중 1등은 1시간 57분에 완주한 4학년 최지연 생도가 차지하였다.



◎ 제3훈비, 전투태세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감찰실 주관 아래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09 전시 작전수행계획 점검 및 전시 작전체제 종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종합훈련은 15일 새벽 6시 00분 전 장병 및 군무원의 비상소집 발령을 시작으로 적 SCUD 공습 및 재난통제훈련, 항공기 사고구조훈련, 항공기 제독훈련,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야간기지방호 훈련 등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전시 기지생존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System works!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사령부 정훈공보실 사진 김윤해 사진작가, Fomos



비평과 농담은 원래부터 친화적이기 때문인지

애니메이션 <심슨>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온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웅변대회 본선에 나가게 된 심슨 가족의 딸 리사는 우연히 하원의원의 비리를 목격하고 준비한 원고를 버린 후 격앙된 어조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썩었다는 요지의 연설을 시작한다.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청중 중에 섞여 있던 요원이 한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건다.

“소녀 한 명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습니다!”

대경실색한 상원의원은 잇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원에서, 하원에서 규탄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비리의원은 곧바로 체포된다. 리사가 연설을 끝낼 때쯤엔 이미 신문에 그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연설을 끝낸 리사가 신문을 보고 외친다.

“System works!”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체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가령 지난 용산참사를 보자.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H의원은 진상규명은 법적 책임을 위한 것이고, 정치적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관련 책임자를 신속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는 당내 소수였고, 묻혀지긴 했지만) 이 사태를 통해 자칫 격앙될 수 있는 민심을 달래는 조치이자,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제스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혹은 현상)에 대해서 체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공군에이스에 대해 처음으로

공군에이스에 대해 처음으로 쓴소리를 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공군에이스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연패에 연패를 거듭하다가, 박태민과 서지훈이라는 걸출한 인재가 들어와 창단



3년 만에 처음으로 겨우 실바람같은 작은 상승세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공군에이스의 현실을, 공군에이스팀 자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문제인가? 지난해 11월 본지의 ‘공군에이스의 7연패 뒤 1승, 누가 그랬을까?’ 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공군에이스의 가장 큰 약점은 제대로 팀을 받쳐줄 수 없는 공군에이스와 관련된 공군의 ‘체제’에 있다.

지금 공군에이스 선수들은 9명이다. 전역을 두 달 여 앞둔 이주영, 박대만의 전역에 맞추어 민찬기, 김성기가 합류하게 되니 앞으로 당분간은 9명 체제가 이어질 듯하다. 9명. 참 소박한 인원이다. 테란 3명(한동욱, 차재욱, 서지훈), 저그 3명(이주영, 홍진호, 박태민), 프로토스 3명(박대만, 오영중, 박정석)이다. 종족별로 수적인 밸런스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그런 산술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공군에이스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밸런스에 앞서 기본적인 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타 프로젝트단처럼 2군 선수들까지 마련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숫자 정도는 맞춰주어야 한다. 공군에이스의 선수들은 오랜 선수생활을 하다가 온 선수들인데,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 스타일은 다른 팀 선수들에게 대부분 파악된 상태이다. 세 살 버릇도 여든까지 가는데, 지금껏 피나게 연습해 온 경기 스타일이나 습성이 쉽게 바뀔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선수 개개인의 스타일을 다양화할 수 없다면,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를 구비하면 된다.

어느 정도의 실력차이는 준비와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스타크래프트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공군에이스라도 다른 팀들이 작심하고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 오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데, 상대팀들이 물러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에 비해 공군에이스 선수들은 상대팀이 누가 나올지 노심초사, 게다가 연습상대마저 부족하니, 근본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공군에이스가 탄생하기 전까지

공군에이스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팀의 구성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미처 몰랐다. 가장 잘하는 한두 명의 선수가 있으면 그냥 그 팀이 최고였

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팀이 선수 개인의 실력차이는 있을지 인정 수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군에이스가 탄생했다. '황제'라는 임요환이 있었고, 오영중, 한동욱, 박정석, 서지훈, 박태민 등 우승자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지금까지 그럴듯한 성적을 거둔 시즌이 없다. 이것은 인원부족에서 오는 넘사벽의 문제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비판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나도 몰랐다고 대답할 수 있겠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 5명의 인원으로 반쪽짜리 창단이 이루어질 때, 인원이 부족한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임요환이라면 뭐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황제도 팀 전체를 혼자서 받칠 수는 없었다. 의지의 화신이자 우리나라 e스포츠의 아이콘인 임요환이 실패했다면, 그 누구도 혼자서 그것을 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System이 work해야 한다. 최소한 20명 이상의 인원을 공군에이스로 보내어 지금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 그럴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군에이스 만들어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인원을 확충하라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공군과 공군에이스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정도면 해줄만큼 해줬으니 성적을 올리는 건 너희가 더 노력해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군에이스는 공군이 구해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공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공군에이스가 공군에 신세를 지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공군을 위해서 공군에이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몇 달 전 공군에이스 해체설이 돌면서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서 신세를 질 수가 있는가? 내 오른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면 왼팔이 무엇이든 대신 해주어야 한다. 그것을 두고 '야, 이 엄치없는 오른팔아. 내가 대신 손가락도 움직여 주는데, 젓가락 정도는 오른팔 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군에이스

가 연패에 빠지고 그 원인이 인원 부족이라는 체제의 문제라면 당연히 체제가 움직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신세를 지고, 감지덕지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공군에이스 창설에 관여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좀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미약한, 하지만 소중한 공군에이스의 작은 상승세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조만간 또 사그러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아 본 것이다.

공군에이스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공군 장병들의 사기를 얼마든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존재다. 인터넷 매체 포모스(Fomos)에 게재했던 유성열 감독 인터뷰 내용 중에 공군에이스가 결승전에 올라서 부산 광안리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을 두고 멋진 경기를 펼친다면, 그 위로 공군 전투기들이 에어쇼를 한 번 보여준다면, 이 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남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뭘싸고 꼭 간다. 뭘싸 못 쓰면 사표쓰고라도 간다.”

사표쓰고 온다. 체제가 조금만 더 받쳐주면 얼마든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공군에이스가 구리로 된 작은 알들밖에 낳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



BOOK

전쟁의 재발견

>> 김도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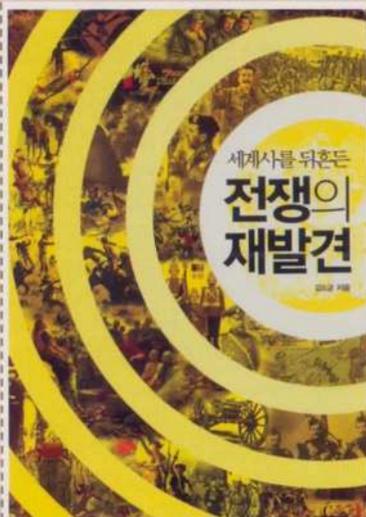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지금은 너무나 변화한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렸지만 40여 년 전 제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던 서울 수유동은 논과 밭 그리고 소나무로 가득했던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봄을 다섯 번쯤 경험했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른손에 대나무 우산대(당시에는 일회용 우산으로 대나무살에 파란색 비닐을 덮은 우산이 널리 이용되어졌음)를 움켜쥐고 동네 형들을 따라서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뒷동네 사는 아이들과 오랜 기간 반목을 해왔던 우리들이 드디어 뒷산의 호젓한 놀이 공간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40년이 흘렀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배변 욕구를 느낍니다. 두렵거나 흥분될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저만의 증상은 아마도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첫 참전경험이 된 그날의 전쟁은 소나무 밭이 끝나고 축구장 절반만한 크기의 공터가 드러나는 산 중턱에서 벌어졌습니다. 반대편 쪽에서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로 무장한 뒷동네 아이들이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대나무 칼을 잡은 손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적들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형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대나무를 휘두르며 멋진 칼싸움을 하고 싶었으나 저는 이미 겁에 질려 칼을 내동댕이친 상태로 큰 소리로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누나 덕에 긴급히 구조되기는 했으나 저의 첫 전쟁은 이렇게 쪽팔린 기억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저는 인근 동네 아이들과 동맹을 맺고 보다 큰 지역 간의 전쟁놀이에 참전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막대기 칼을 들고 산 속을 휘저으며 또 다른 점령지를 향해 내달리던 시절의 추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이러한 제 추억의 언저리에서 전쟁을 잠재적으로 열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고 그 잔혹성과 무익함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전쟁을 만들어 스스로를 참혹한 고통 속에 몰아 넣어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DNA속에는 오래전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전쟁욕구의 유전자가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곰 피디의 전쟁이야기(blog.ohmynews.com /gompd)'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이면서 오마이 뉴스 소속으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김도균 기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매우 기자다운 시각에서 전쟁이 만들어 낸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 군대, 전사자 처리의 역사, 소련의 여성 폭격기 연대, 전투식량의 지원, 기관총, 전차, 어



뢰 등 현대 무기의 발명 과정, 각국 군기에 얽힌 사연 등 4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책은 대부분 우리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군사 마니아인 저자가 오랜 시간 세계전사를 공부하며 건져 낸 뉴스거리들은 기사로 말하면 특종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새롭고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전쟁이 발발하면 더 이상 군인들만의 전쟁이 될 수 없는 현대를 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레온 트로츠키의 조언을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

구/름/을/넘/어

- 전투기를 지원하는 공군요원들 -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이종호 중위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36번째 임무였다. 캐나다 우주센터에 위치한 발사대 39A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본 임무-STS 119-는 디스커버리호의 36번째 임무였다.

최신 항공기가 첫 임무 수행을 위해 조립 공정으로부터 그 위용을 드러낸다. 성능 확인을 위한 처녀 시험 비행의 기회는 주어져지 않는다. 발사 시 자그마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거침없이 발사되어 최대 15년까지 아무런 결함없이 작동해야 한다. 발사 후에는 정비를 위해 귀환시킬 수도 없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완벽이라는 두 글자를 기대한다.

우주 임무에서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우주사령부 요원들은 각 임무 시 완벽을 기해야 한다. 우주인의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돈이 이에 달려있다.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팰트릭 공군기지 45우주단 요원들은 Cape Canaveral 공군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미 정부 및 상업용 위성의 진행 및 발사를 담당하고 있고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위성 임무는 발사 훨씬 이전에 그 작업이 시작된다. 공군은 전투기가 전투시 우월성 확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국방부와 논의한다. 특정 지역의 폭풍 추적 혹은 상황 판단을 위한 고성능 기상 위성이 될 수도 있고 미군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 위성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군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를 가능토록 해주는 정보 위성이 될 수도 있다.

을 궤도로 쏘아 올리게 된다. 지구 밖에서 이 위성들은 전투기가 전투시 우위를 가질 수 있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게 된다. “부대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통신, 정보, 위성이건 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GOEO 발사 임무 통합관인 에릭 보그 대위가 말한다.

“우리는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델타 포를 수평 통합 시설에 장착한 후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들을 이곳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곳은 위성을 발사대로 옮기기 전, 모든 필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발사 체계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길고 지루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통합 발사 연합(United Launch Alliance), 제5우주 발사대원들 및 임무 보증 기술자 간 팀워크를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모든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켜냅니다.”

EEL 차량(EELV), 아트라스 포 및 델타 파이브는 최신 위성운반차량으로서 근시일 내에 국가적 군 위성 자산 및 민간, 상업용, 그리고 과학 위성의 발사에 주로 사용될 것이다. EELV는 국가 및 군 위성 자산 발사 역사에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국제 통신, 정확한 항법, 그리고 적군 공격 및 기밀 침투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제공해준다. 델타 포 및 아트라스 파이브는 중량의 위성체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차세대 장비이다.

전문가들은 위성체가 발사 차량에 탑재되는 과정 또한 감독한다. 제45발사지원대대의 임무보증기술자인 바비 크럼 하사는 위성이 발사 전 완벽히 운영 가능하지 하청업체와 함께 검사한다. 크럼 하사는 순백색의 낙하복과 헤어넷을 착용한 채 위성이 로켓 상에 탑재 및 준비 완료될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제45우주단이 궤도에 올리는 또다른 위성 체계로는 GPS가 있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로 하여금 본인의 정확한 위치 및 유도 무기를 이용하여 무기체계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GPS는 민간용, 과학용 및 상업용(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GPS 위성은 해양 운송 및 항공 여행에 사용되며, 오늘날에는 차량 및 핸드폰에까지 GPS 체계를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현금카드 혹은 신용카드 사용시 GPS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시간 측정 기능이 사용된다. 오늘날 사용되는 GPS



델타 두 추진체를 통해 Cape Canaveral 공군기지의 우주발사단지 17-B로부터 발사되는 모습

위성 전부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우주 발사 단지인 Cape Canaveral AFS에서 발사된다.

“임무 성공이 곧 저희의 사명입니다.”라고 제45우주단장인 에드워드 “Ed” 볼튼 주니어 소장은 말한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전력은 미군 작전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력 및 자원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주 기반 능력들을 통해 정보, 위치 추적, 기상 및 통신 정보 등을 전투기에 제공하여 소규모 전력에 대해 더욱 더 치명적인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Cape Canaveral AFS 및 약 천오백만 제곱 마일 규모의 동부 훈련장이 운영 중이다. 기상의 정확한 예측 없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이끌 수 없다. 기상 예측관은 발사대 차량과 그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폭풍우 혹은 강풍 예상 시 신속히 경고 보고를 해야 한다.

제45기상대대 기상 작전 본부는 공군 자산 및 NASA 근무자 지원을 위한 일일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소속원은 플로리다 주 멜번에 위치한 국립 기상 서비스와 관계를 수립, 기지 자원을 보호하며 국립기상서비스와의 정보교류를 통

해 예상되는 허리케인이나 폭풍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제45기상대대원들 없이 우주왕복선의 발사는 불가능하다.

“카운트다운에서부터 발사까지 NASA 당국자의 결정은 우리의 기상에 의존하여 이루어집니다.”라고 Cape Canaveral AFS의 훈련장 기상 임무편대장인 그렉 스트롱 중위는 말한다. “우리는 휴스턴의 우주 비행 기상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주왕복선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을 때 왕복선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지요. 본 지원은 왕복선이 발사대에서 출발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발사시, 발사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NASA 임무 지원 발사 기상 담당관이 있습니다. 발사 기상 담당관팀이 NASA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인간 우주 비행 프로그램의 국방부 지원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부서인 패트릭 공군기지의 제45작전전대의 3파견대 또한 NASA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곳의 직원들은 나사의 우주왕복선,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소유즈 임무 및 다가오는 천체 프로그램 임무를 지원한다.

우주왕복선 임무 전, 제3파견대원들은 케네디 우주센터의 공군, 해병대 및 주 방위군 자원을 포함하는 미 전략사령부 합동 기능구성사령부와 협조, 발사 임무를 지원한다. 또한 국방부 전력과의 협조를 위하여 범대서양 착륙 사이트에서의 발사 임무를 지원한다. 우주왕복선 발사 후 제3파견대는 우주왕복선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방부의 협조 지원이라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공군기지의 국방부 지원 작전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대한 공군의 지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Mike Gawel로서, 제45우주단의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로 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군의 중심 연락처로서 케네디 센터에서 3월

15일 발사된 우주왕복선 발건 임무를 포함한 30건의 왕복선 임무를 지원하였다.

“우리는 NASA와 협력하여 그들이 우주왕복선 임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주왕복선이 2010년 퇴역함과 동시에 그는 천체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로 보임받게 된다.

“우리는 현재 올 여름 발사 예정의 Ares 1-X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NASA와 함께 필요 조건들을 수립중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의 실수가 재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임무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NASA 시험 과장인 Jeffrey Skaja씨가 말한다. 추진체 전문가인 Skaja씨는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으며 Ares 프로그램으로 임무 전환 중이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행해지는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발사부터 착륙까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은 2학년 때 가족과 함께였어요. 그때부터 제 꿈은 우주 관련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지요.”라고 Skaja씨는 말한다. 그는 또한 로스엔젤레스 공군기지에 위치한 우주 및 유도탄 센터의 발사 및 훈련장 우주단에 소속된 예비역 공군 소령이기도 하다. NASA 합류 전, 그는 로켓 추진체 개발에 몸 담은 현역 장교였으며 로켓 발사 및 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편대장이기도 하였다. “공군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주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위성 프로그램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축적을 통해 위성체를 어떻게 궤도에 올려 놓는지를 배웠죠. 공군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제 꿈을 이루어주었습니다.”

공군은 Gemini, Mercury 및 Apollo 임무 등 지난 몇십 년



Greg Strong 중위가 Joel Tumbiolo 중위와 STS-119 임무를 위한 우주 왕복선 발사 준비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Strong 중위는 훈련장 기상 작전 비행편대장이며 Tumbiolo는 패트릭 공군기지의 제45기상대대의 NASA 발사 기상 장교이다.



Brian Capps 대위(좌)가 Dario Plazas 중위와 함께 '델타 투' 로켓의 발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Capps 대위는 비상 훈련 선임 장교이고 Plazas 중위는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임무 보증 기술자인 Marshall McBride 하사(좌), Tony Lamb 하사(중), 그리고 Clement Blackmon가 비행 준비 중 인 델타 포로켓의 현장 작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Bobby Chrum 하사(좌)가 GPS 위성 준비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Chrum 하사는 NASA와 협력, 발사 전까지 위성이 완전히 임무 가능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dward Bolton 준장이 공군 및 NASA간 협력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Bolton 장군은 제45우주단 단장이다.

동안 NASA에 도움을 줘 왔다. 차기 임무로는 달 착륙 지점 탐색을 위해 달 표면을 지도화하는 Lunar Reconnaissance Orbiter를 포함하며 천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리의 NASA에 대한 지원은 우주왕복선 그 이상입니다. 케플러, 허블 및 기타 과학 임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요한 임무가 이루어졌지요. 예를 들어 케플러는 은하계에 있을지도 모를 지구와 비슷한 행성 탐색을 위해 발사 되었어요. 발사 패드의 해체 또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계획 또한 세우고 있다. 우리와 우리 파트너인 NASA는 우주선 발사 패드 해체 시 환경 친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볼튼 장군은 말했다.

현재의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업이 실패를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산업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라고 볼튼 장군은 말한다. “2008년에 7건의 발사를 성사시켰습니다. 올해는 20여 건의 발사를 성사시켰지요. 최근에는 29일 동안 네 건의 발사 및 우주왕복선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미국이 우주 산업의 제1인자로 군림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

니다. 국방부 임무를 성공시키는 것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성공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우주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무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볼튼 장군이 말했다. “모든 발사에 있어 안전한 작전, 환경 친화적인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합니다.”

공중 및 우주 통제에 있어 미 전투기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게 된다. 우주 기반 기술들은 오늘날 파일럿들에게 정밀폭격 능력을 제공하고 필요 정보, 위치 추적, 기상 및 통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상군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지상 우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써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많은 연합 전력의 생명 또한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전투에서뿐 아니라 자동차 네비게이션, 실시간 문자메시지에 아우르는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발사 전 모든 준비 과정에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을 통해 미군이 어디에서든, 언제든 의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해준다. ㉗

7월의 공군역사

자료제공: 공역사기록관리단 원고장리 편집실

육군방공포병 공군으로 전군(1991년 7월 1일)

육군방공포병의 공군 전군은 1971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중반 국방부 특검단의 수차례에 걸친 전술토의와 합참의 통합방공작전체제 연구 및 영공방위 전술토의를 거쳐 1988년 1월 1일부로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공군(작전사령부)이 평시 작전 통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방공포병이 대공방위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서 육군보다는 공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공군은 1988년 4월 1일부로 비행단에 전개해 있던 육군대공포(발칸포)를 인수하여 제88방공포전대를 창설함으로써 방공전력(항공기, 레이더, 방공포병) 통합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이후에도 방공포병의 공군 전군 문제는 818계획(국방태세발전방향연구)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거론되었으며 육군은 방공포병 존속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단일화된 지휘체계하에서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상부방침에 따라 방공포병은 1991년 7월 1일 공군방공포병사령부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 공군은 육군방공포병의 전군으로 균형적인 방공전력의 통합작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타가 공인하는 철통같은 대공방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방공포병 전군식에서 한주석 前 총장의 방공포장비 사열모습



공군대학 창설식에서 포즈를 취한 김정렬 총장 외 관계자들

공군대학 창설(1956년 7월 15일)

공군의 간부요원에 대한 지휘능력제고, 항공 전술전략개념 부여, 참모 및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실시를 위하여 1956년 7월 15일, 여의도기지에서 공군대학을 창설하였다.

1958년 12월, 공군사관학교의 신축부지(대방동)로 이전한 공군대학은 독립교사(校舍) 없이 사관학교내 건물 2개동에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공간의 제약 등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교육소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지자 사관학교 유휴부지인 중앙도서관 남쪽지역에 1970년 7월 신축 청사를 완공하였다.



공군대학은 진해지역의 육군 및 해군대학과는 달리 재정지역 위치에 따른 교육여건의 질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왔으나 1984년 8월 국방부가 각 군 대학을 자운리(자운대)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군사관학교마저 1985년 12월 도심지 주둔부대 교외 이전계획에 따라 청원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공군에서는 교육여건의 연계성 확보와 후방지원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청원기지를 희망하였다. 국방부에서도 공군의 희망대로 청원기지로 이전을 승인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계룡대와 자운리 지역으로 예정지를 번복하는 등 공군대학의 이전문제는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자운리 지역으로 1995년 12월 이동을 완료하였다. 공군대학은 현재 고급(CSC) 및 초급지휘관참모(SOC)과정 등 7개의 교육과정에 미국, 대만 등 6개국의 외국장교를 수탁 교육하고 있다.

6·25 전쟁 휴전(1953년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촉발된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잠시 멈추게 되었다. 개전초기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이 오직 경향공기 22대로 남하하는 적군에 맞서야 했던 우리 공군은 휴전시까지 F-51 전투기 133대를 도입하여 총 8,495회의 출격에 적병사살 899명, 건물 1,770동, 차량 459대, 탄약 및 연료집적소 1,285개소, 철교 및 인도교 124개소, 포진지 521개소 등을 파괴하고 철도 1,014개소를 차단하는 전과를 거두어 UN공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전투출격기록을 수립하였으며 39명의 조종사가 100회 출격의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우리 공군은 총 22명의 조종사가 적지에서 장렬히 산화하였으며 17명의 조종사가 훈련 중 순직하였다.



6·25전쟁기간중 총 39명의 조종사가 100회 출격을 달성함

국산 경향공기 새매호(PL-2) 제작(1972년 7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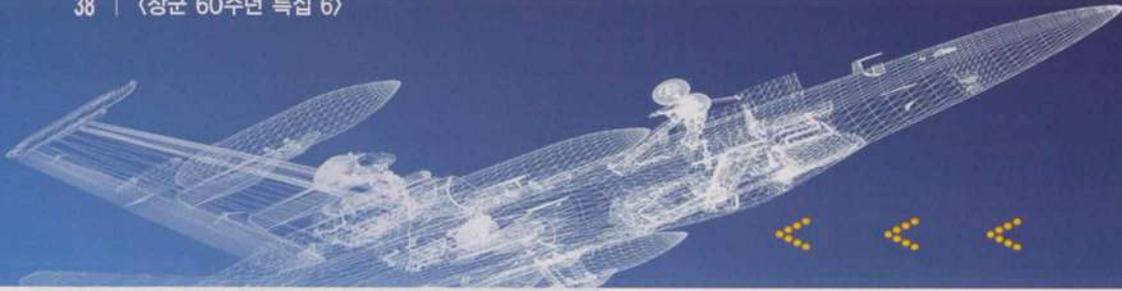
우리 공군은 미국의 점차적인 군사원조 감소로 인하여 훈련기 및 항공장비의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자 항공기 제작능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훈련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71년 후반기부터 국산 경향공기 제작사업인 새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군수사령부 예하 81정비창에서 총 제작기간 250일에 연인원 4,030명과 미화 63,500달러(당시 환율 706 : 1, 한화 44,835,000원)의 예산을 투입한 끝에 1972년 7월 28일, 시제기를 완성하여 새매호로 명명하였다.



Pazmany Aircraft Corporation사의 PL-2 복좌형 비행기 설계를 빌려온 새매호는 3륜의 고정형 바퀴다리에 모노코크 구조(monocoque : 항공기 외판만으로 하중을 견디도록 한 형태)의 저익형 금속제 단엽기로서 우리 공군의 기술진에 의해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으며 시제기를 포함 총 4대가 제작되어 특수임무요원에 대한 훈련기로 활용하였다. 새매호는 부품조달의 애로점과 항공기 노후 등으로 1996년 1월 퇴역하였다. ㉞

◀ 제 원 ▶

최대출력	순항출력	자중(LBS)	최대속도(MPH)	순항속도(MPH)	체공시간(순항)	행동반경(순항)	날개*동체*높이
150HP	110HP	950	205	136	2시간 50분	300Mile	28.6*19.4*7.8ft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6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부활호

부활호는 1953년 6월 공군기술학교 제3대 교장인 김성태 대령의 지시와 이원복 소령의 주관 하에 탄생한 최초의 국산 항공기이다.

부활호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화된 조국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부활(復活)이라는 친필 휘호를 하사하였으며 1954년 4월 3일 김해기지에서 함태영 부통령 임석 하에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955년까지 연락기와 연습기로 활용하다가 한국항공대에 기증 후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부활호는 대구 경상공고 지하창고에서 기골만 남은 채 발견되었다. 공군은 하늘을 향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배 장병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기골을 바탕으로 전체 모양에 대한 수치를 역으로 계산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알루미늄을 손으로 하나하나 두드려 부품을 만들어 나가는 등의 헌신적인 복원작업을 진행한 끝에 2004년 10월 22일 마침내 잊혀진 역사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008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바 있다.

● T-37 훈련기

T-37C 미국 CESSNA사가 개발한 쌍발엔진의 기초훈련기로서 제트기의 조종과 계기형태 및 야간 비행술을 교육시키도록 고안된 최초의 제트훈련기입니다. 공군은 1973년 6월 7일 F-5 및 F-4 계열의 전초 훈련기로서 T-37C 11대를 최초 도입하였으며 총 25대를 군원(軍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援)으로 도입하여 중등비행훈련용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보유대수의 제한으로 T-37C 훈련기 외에도 T-28, T-33 항공기가 1980년 초반까지 중등비행훈련에 활용되는 형편이었다.

공군은 T-28, T-33 훈련기가 1960년 이전에 도입한 노후기종이고 F-5 및 F-4 계열의 훈련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종성능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군수지원상의 장점을 가진 T-37C 훈련기의 추가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T-37C 훈련기의 추가확보가 1985년까지 어렵다는 미 공군의 입장과 함께 원제작사인 CESSNA사가 이미 생산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추가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구원 솜을 날려준 축구의 나라가 있었으니 이는 다름 아닌 브라질이었다. 때는 1980년 11월, 브라질 공군이 T-37C 훈련기 44대를 국제입찰로 판매한다는 희소식이 T-37C 훈련기의 추가확보에 가슴을 태우고 있던 차에 날아든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그 즉시 남강계획으로 명명한 치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입찰에 도전한 결과 10여개 나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39대의 T-37C 훈련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 공군은 총 64대의 T-37C 훈련기를 운영하였으며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KT-1 기본훈련기가 배치됨에 따라 2004년 2월 일선에서 물러났다. T-37C 훈련기는 약 30년의 운용기간 동안 4천명 이상의 조종사를 배출했다. ④

- ① 한국 최초의 국산항공기 "부활호" 모습
- ② 부활호 제작을 위한 제작요원들의 교육
- ③ 부활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설명을 받고 있는 참모부장 정덕창 소장(오른쪽)
- ④ 명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함태영 부통령과 군 수뇌부들
- ⑤ 명명식을 마치고 부활호 앞에서 기념촬영한 참모총장 최용덕 중장
- ⑥ 1999년, 공군사관학교 성무공원 전시실 복원 부활호를 제81항공정비창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습
- ⑦ 2004년 10월 22일 군수사령부에서 부활호 복원 기념식 거행
- ⑧ 1973년 6월 6일 부산항 제3부두에 도착한 T-37C 훈련기 최초 도입분을 하역하는 모습
- ⑨ 최초 도입분을 헬기를 이용하여 김해기지로 공중수송하는 장면
- ⑩ 제3훈련비행단에서 거행된 T-37C 전환비행교육 수료식
- ⑪ 제3훈련비행단에서 T-37 비행훈련에 앞서 교육을 받는 조종사들 모습
- ⑫ 비행직전 조종사와 정비사가 최종 점검하는 모습
- ⑬ 1986년 9월 사천기지에서 편대이륙하는 모습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그려본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자료제공 전투발전단 교리발전과 원고정리 편집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이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후원하는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6월 24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군 창군 60주년과 새로운 60년을 향한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략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공군의 위상(1부)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공군의 전략적 과제(2부) ▲새로운 60년-한국 공군의 미래와 과제(3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국방개혁 달성을 위해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언론, 방위산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되었던 3편의 주요 발표문을 정리해본다.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1_발표자 노 훈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의 변화를 다룸에 있어,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이라는 두 개념들이 포괄하는 넓은 범주 안에서 논점의 폭을 좁혀 가면서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그 두 용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과 군사전략 두개의 용어의 폭을 가급적 좁히는 시도를 하였고, 여기에는 과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과의 의미와 관계, 군사전략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군사기술과 군사전략의 일반적인 관계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한정시킨 의미를 가지고 현재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군사기술의 변화 동향과 군사전략의 변화 방향을 언급하였고, 여기에는 선진국의 군사기술의 발전 동향과 이로 인한 장차전의 양상,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전제로 군사기술의 발전이 군사전략에 미치는 일반적인 함의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세가 우리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관한 대처 방향을 논하였다.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과 군사기술 발전 추세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를 군사전략에 반영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하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 현 시점에 대두되는 쟁점과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등을 여기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전략의 선택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근래에 들어 그 영향이 과거보다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마치 과학기술이 군사전략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또 과학기술을 통해 더 효과적인 새로운 전쟁방식, 즉 군사전략을 모색해 나간다는 관점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우리의 군사전략을 다룸에 있어 필히 유념해야 할 것은 군사전략은 과학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은 원천적으로 반복적이고 동일한 효과를 얻는 객관적인 법칙에 근거하지만 전쟁은 동일한 행동이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없는 불확실하고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전쟁의 작용 논리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반대로 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는 다른 관점에서 역발상의 군사전략이 설정될 필요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군사전략의 설정에 있어서는 군사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군사기술 측면에 대한 적응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군사전략이나 과학기술의 관계는 오랜 연구의 역사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전략에 대한 군사기술 발전의 역작용이나 그 영향력의 상대적인 저평가는, 현시점에서 군사기술의 진전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우리 군에게 상황적인 상대성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㉑



노 훈
 서울대학교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장
 한국국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5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現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 발표자 박영준, 박창희

일본과 중국의 군사전략 현황과 전망 : 국방백서 비교 분석

2006년 3월 27일, 일본은 기존의 통합막료회의를 통합막료감부로 재편하면서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로 이행한 바 있다. 통합막료장이 방위대신을 보좌하면서 자위대 운용에 관한 명령을 일원적으로 하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된 것이다. 2007년 1월에는 종전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였다. 이로 인해 방위성은 방위정책에 관한 기획기능 및 예산 편성에서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 비핵3원칙, 문민통제 원칙 등 평화헌법 하에서 일본이 표방해온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이 예상되거나, 주변지역에서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에는 일본 독자의 노력, 미일안보체제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그 위협을 배제하겠다는 방위정책의 기본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 3단계 군현대화 방침을 제시하고 최종목표로 21세기 중반까지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군 현대화는 현재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004년, 2006년, 2008년 중국국방백서가 중국군 현대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최종목표를 21세기 중반, 즉 중국 건국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단계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2단계인 2010~2020년 기간에 중국군이 미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얼마만큼 줄여나갈 것인가에 있다. 이 시기에는 정보전수행 기반과 능력면에서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지역 군사강국을 따라잡는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민감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서의 군사력균형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안보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영준 | 국방대학교 교수

연세대 정외과 학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동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 위원장
현대일본학회 총무이사



박창희 | 국방대학교 교수

미 해대원 (Naval Postgraduate School)
국가안보 석사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아태안보연구소(APCSS) 정책연수
안보문제연구소 군사문제연구실장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①_발표자 이정훈

국방개혁 2020 수정안과 공군 전력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에서는 야전군 사령관 자리 하나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가 없어진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인지 합참에 합동군 사령관 역할을 하는 합참 1차장제를 신설해 육군 대장을 보임하려고 한다. 또 육군은 2020 원안에서 유지하겠다고 한 수방사를 없애고 대신 4개를 두기로 한 미래형 지역군단을 수정안에서는 5개로 늘인다. 이로써 육군은 1~2만 명 정도를 덜 감군할 수 있게 되었다.

2020이 완성되면 육군과 해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단독으로 한반도 전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미 7공군과 함께 한미연합공군사를 만들어 작전하므로 여전히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된다. 2020 완성이로 독립을 달성하는 육군과 해군에 비해 공군의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2020 수정안에서 공군 사업은 줄줄이 순연되었다. F-X 사업과 C-X 사업, KC-X 사업, 고고도 UAV 사업, 차기 SAM-X 사업, KFX 사업의 달성 연도가 2020년 이후로 순연된 것이다. 이러한 전력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더라도 미국이 제공해주기로 한 분야이기에 22조원의 전력증강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주요 공군 사업의 달성연도를 연기했다. 따라서 공군의 對美 종속은 2020의 완성과 무관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육군 지역군단의 작전중심인 70~80km이다. 공군은 이 가운데 전선 바로 앞에 있는 육군 사단의 진격 지역에 대해 CAS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육군 지역군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70~80km 이상 지역은 空作사가 때리는 공군 작전구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20이 완성되면 육군의 미래형 지역군단의 중심은 150km, 미래형 기동군단은 250km(추정), 그리고 유도탄사의 중심은 300km까지 깊어진다. 육군 부대의 작전구역이 확대됨으로써 공작사의 작전구역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육군과 공군 간의 심각한 작전구역 다툼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거리가 긴 ICBM을 운용하는 부대는 공군 우주사령부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공작사 작전구역과 중첩되는 곳을 타격하는 육군 유도탄사를 공군으로 轉軍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작사와 유도탄사가 중복사격을 하는 것을 줄여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고도 UAV 등 공군의 정보자산 분야도 하루 빨리 확보돼 공중 정보 자산의 자립도 시급히 완성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공군 능력의 자주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❶



이정훈
연세대 도서관학과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과 수료
주간동아 편집장
신동아 편집위원
現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집이란, 사람이 나고 살다 늙어 죽는 집이란,
살기 위해 있는 것인지 재산증식을 위해 있는 것
이 아니다. 해서 난 오늘도 오류동의 집푸른 신
록 속에서 큰 숨을 쉬며 무척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

✦ 이현수 | 소설가, 창공글터 회원

집 과 집 사 이

나는 서울 오류동에서 12년 째 살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서울 시민이 12년 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오죽했으면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혹시 이사할 계획이 없느냐며 전화를 했겠는가(이런 일 많지 않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한 곳에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사는냐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들어온 아파트 초기 입주자들은 전부 이사했고, 그 뒤로도 서너 차례 집주인이 바뀌었다. 부동산 사무실에선 우리 집만 들고나질 않으니 수익을 생각하면 속이 터져도 한참 터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자주 움직여야 재산증식이 된다며 한 수 거들어 주기까지 했다. 내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다. 그 첫째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책이 많은 관계로 이사할 업무를 내지 못한다. 이사할 시간과 정력이면 단편이나 중편 한 편 정도는 쓰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는 오류동이 작가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오류동은 인천 경계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어서 집값이 싸다. 같은 값에 작업실이 딸린 집에서 살 수가 있다. 특히 소설가는 소설에 필요한 온갖 자료를 널어놓을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 작업실이 없을 때는 필요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작업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꺼내 펼쳐보아야 하니 그 속도가 실로 더뎠다. 그러나 자료를 방에 널어놓으면 잠시 설 견,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눈으로 이리저리 자료를 훑게 되니 자료 속으로 좀 더 빨리 빠지는 이점이 있다.

글을 쓰며 사는 일이 남 보기엔 고상해 보여도 집에서 작업하는 주부작가일 경우 가정도우미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난 시간 단축을 위해 설거지는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원칙이 깨지면 즉, 작업과 집안일을 분리하지 않으면 온종일 집안일에 묶이게 된다. 그러니 설거지 그릇을 쌓아둬도 무방하도록 주방에 문이 달려있어야 한다. 또 간간이 오는 손님이나 가족들이 설 만한 장소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독립된 거실도 필요하다. 원고



로 바쁠 때는 거실만 후닥닥 청소하게끔 말이다.

작은 돈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데는 오직 오류동뿐이다. 게다가 지하철 역, 재래시장, 도서관, 초·중·고교가 도보 10분 거리 안에 다 있고, 집에서 20분만 걸어가면 특 트인 들과 첩첩 산이 나온다. 눈이 아물거릴 정도로 책이나 컴퓨터에 빠져 있다가 편한 신발을 끌고 나가면 20분 안에 가뿐히 숲에 당도하는 지역은 아마 오류동 밖엔 없을 것이다. 집에만 박혀 사는 백수나 작가는 하루에 한 번 대자연의 품에 안겨 큰 숨을 쉴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 구상 중인 작품이 사방으로 열개를 갖춰 작품 풀이 난 건 전부 산책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말하자면 회사의 기획회의 같은 걸 이 숲속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작가인 나는 오류동 찬가를 계속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지금도 오류동이 개발될까봐 겁이 나는 사람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발전국 아닌가.

물론 가족 모두가 오류동에 사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엔 일산에서 살았다. 거기서도 초기 입주자였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서나 초기 입주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살 땐, 12년 전의 일산은 몹시 황량하고 불편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교통은 말이 아니었고, 호수공원도 없어 일산의 허파 역할을 하는 건 달랑 정발산 뿐이었다. 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도 뭇한 언덕 같은 그 정발산 말이다. 허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시장이라곤 이마트 하나, 게다가 사철 부는 그 흙바람과 아침마다 끼는 안개라니.

글 쓰는 사람이 안개를 싫어한다면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야장천 안개 낀 아침을 맞아보라. 저절로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기에 이상이 온다. 그리하여 서울 시내를 발품 팔며 돌아다니다가 오류동으로 오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오류동 집은 넓어서 좋지만 길에 전봇대도 볼썽 나와 있는 것이 옛날 동네라고(지들 표현대로라면 동네가 구리다고) 싫어하고, 남편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싫어한다. 우

리 가족이 이사 오고 나서 일산은 집값이 몇 배나 오르는데 오류동만 값이 요지부동이니 손해란다. 내가 오류동으로 이사하자고 했으니, 가정 경제에 끼친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과 애들이 푹푹 멍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문학상을 타도 그 빛을 갚을라 말라 한다는 이상한 경제 논리를 들이대며 말이다. 물론 나는 가족들의 말에 승복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는 경제에는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이 있다. 가정 경제를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그 집이 싸건 말건 아무 상관없다. 어디서든 살 집이 한 채는 있어야 하니 아무 데서나 자기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 된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야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채산성을 따져 봐야하겠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 경제, 숨은 경제도 있다. 어릴 때 자주 이사하지 않아서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된 것은 왜 계산에서 빠지지 모르겠다. 우리 애들은 잘살 수만 있다면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도 고맙겠다고 하지만, 유년기 이사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서적인 안정이야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이상의 것 아닌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국민 모두가 경제를 제일로 치는 경제국민들이다.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부자되라는 덕담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가정 경제에 민폐나 끼치는 내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썩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며 같은 값에 분통같이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다. 달랑 한 채 있는 집값이 얼마인지 하루하루 가늠하며 마음을 졸이고 사니 잘살 턱이 없다. 집이란, 사람이 나고 살다 늙어 죽는 집이란, 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재산증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난 오늘도 오류동의 질푸른 신록 속에서 큰 숨을 쉬며 무척이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 ①





천사의 옷을 입은 백로

서산시 오남동의 마을 주민들의 백로 사랑은 남다른 면이 있다. 백로들이 서식하는 곳을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진입금지, 백로 왜가리 서식지'라는 주의 표지판을 세워놓고 백로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 주민들은 몸 전체가 흰색인 백로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길조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 백로들의 개체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남동의 소나무 숲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백로들이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를 보호하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티 없는 순수한 농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오남동의 소나무 숲 주변 밭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부부는 만날 때마다 수확한 풋고추를 나누어 주곤 하는데 지난번 탐조 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고추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 백로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며 하늘을 빙빙 돌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김새가 들어서 가까이 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백로 둥지가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알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을 돌던 백로와 왜가리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일제히 똥을 싸더군요. 그리고도 성이 안찼는지 물고기가 반쯤 소화된 것을 그 사람 머리 위에 토해놓기도 하구요” 결국 그 사람은 백로 알을 포기하고 온 몸에 백로 똥을 뒤집어 쓴 채로 혼비백산 도망을 갔다고 한다.

백로와 왜가리들이 모여 사는 곳엘 가면 주변에 새들이 싸놓은 똥으로 인하여 나뭇잎들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 있

다. 오남동의 소나무 숲 주변에는 엄나무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잎의 색이 대부분 흰색으로 바뀌었다. 똥에는 식물에 좋지 않은 독한 인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지는 물론 뿌리까지 썩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새들은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입에 넣어 주면 바로 배설을 한다. 그리고는 아기새가 배설하는 것을 입으로 물어서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가져다 버리는데 이것은 둥지 근처에 배설물이 있으면 천적들이 배설물을 보고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발견할까봐 보호를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백로나 왜가리들은 이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 새끼들이 둥지에서 그대로 배설하게 놔두는 것이다.

백로들의 똥이 잔뜩 있는 곳의 나무 위를 보면 틀림없이 새의 둥지가 있다. 백로들에게는 새끼들의 똥을 둥지밖에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똥으로 덮인 나무줄기는 미끄러워서 천적이 올라가기 어렵고 냄새가 역해서 둥지가 올라가려면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냄새로 인하여 요즘에는 백로들이 모여 사는 숲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때문에 이 새들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근에는 오남동 백로 서식지 근처로 대형 운송업체가 입주했었는데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차량에 배설을 하여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한때는 길조로 사랑받던 새들도 시대가 바뀌어 서식지 근처까지 인간의 생활터전이 자리잡으면서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한다.

백로의 똥에 얽힌 소문은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머리에 똥을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된다는지,



02



03



47

04

- 앞쪽 위 | 01_백로가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날아가고 있다
- 위 | 02_백로가 동지 위에서 우애를 다지고 있다
- 03_백로가 동지를 만들 재료를 나르고 있다
- 04_백로가 부화된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기르고 있다

병에 걸린다든지 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로나 왜가리 서식지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데, 아마 옛날에 강원도 황성의 압곡리 마을에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에 백로들이 미리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 주어서 화를 면하게 했다는 소문이 퍼진 후로 시골사람들은 이 새를 각별히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서식지 주변에 갈 때마다 자동차에 새똥이 떨어지곤 하는데 게으름을 피워 새똥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더니 페인트가 심하게 변색되는 것으로 보아 독성이 강한 것 같았다.

초등학생의 업살

호기심이 많은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잘 날지 못하는 어린 백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방금 동지를 떠난 것 같았다. 아마 첫 날개짓을 하다가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백로는 소나무 높은 곳에 있는 것만 보았는데 땅에 있는 것을 본 학생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자기에게 다가온 학생을 보고 어린 백로가 괴성을 질러대자 새끼를 보호하려는 백로들이 총 공격에 나섰다. 어린 백로의 엄마새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백로들까지 모여서 학생의 머리 위를 날면서 똥 폭탄을 쏟아 놓기 시작하였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공격을 하였는데 똥과 함께 쏟아놓은 소화되지 않은 물고기와 작은 뱀들이 학생의 머리와 몸에 떨어졌다. 숲에서 뛰쳐나오는 학생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른이 되기도 전에 대머리가 되면 어떡하죠?”

아이의 음성은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엄마들이 박장대소를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탐조 활동 때 동행을 한 학생의 엄마가 수건에 물을 적셔서 임시로 학생의 머리와 옷에 묻은 오물을 닦아 주었다. 울상이었던 학생이 금방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새삼 느끼게 된다. 여기에 모인 많은 학생들과 저 높은 소나무 위에 동지를 만든 많은 백로들도 엄마가 없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테니까...

부대에서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충·효·예 교실의 학생들 30여 명이 탐조를 따라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 본다.

“저 새들은 어떻게 조준을 하는데 똥을 이렇게 머리 위에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새들이 조준경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정확하게 맞추겠어. 아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가까이 내려와서 똥을 싸니까 잘 맞출 수 있지.” 곧바로 대답을 했지만 맞는 대답이었다.

며칠 전에는 향나무 위에 지은 물까지 동지 속의 새끼를 촬영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작은 새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던 것이다. 높은 사다리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 하마터면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하였다. 엄마 새는 머리를 쪼고 아빠 새는 등에 앉아서 심하게 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토록 새들은 아



05

- 아래 | 05_동지와 떨어진 소나무 위에서 수컷이 경계를 하고 있다. 06_황로와 백로(부리가 노란 것이 황로임)
- 뒤쪽 위 | 07_동지와 떨어진 습지에서 새끼새에게 줄 먹이를 찾고 있다. 08_황로가 숲 속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다. 09_왜가리의 비상하는 모습
- 10_숲 속에는 해오라기도 함께 살고 있다.(해오라기 미성조)

06





07



08



09



10

기 새에 대한 보호 본능이 그 어는 동물보다도 강하다.

서산시 오남동은 백로와 왜가리들의 번식지로 유명하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름철새 집단이 번식을 하는 장소인 것 같다. 약 3,000여 마리의 새들이 번식을 하는데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황로, 해오라기 등이 주종이다. 주변에 논과 개천이 있고 어족자원이 가장 풍부한 간월호가 근처에 있어서 대형 여름새들의 번식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물론 조류퇴치담당자들도 백로와 왜가리, 그리고 황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호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천사 옷을 입은 것 같은 새하얀 백로는 다른 대형 여름철새와 확연히 구분이 된다.

백로의 퇴치

백로가 비행단의 상공을 통과하거나 기지 내로 진입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 새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일본의 시골마을 사람들이 백로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 작은 개울에는 해마다 물고기들이 바닷가에서 몰려 올라와서 마을의 수입원이 되곤 했는데 백로들이 물고기가 올라오는 길목에서 계속 잡아먹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폭죽을 쏘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살을 쏘아댔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개울 위로 그물을 설치했다. 그렇지만 새들은 그물의 빈틈을 찾아내어 물고기를 잡아 갔다. 그 장면을 보면서 새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먹이가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가며 사냥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백로의 퇴치는 간단하다. 기지 내에 배수로와

습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백로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새끼들은 밥을 달라고 보채는데 먹이가 없는 수로에 왜 있겠는가.

활주로 상공을 횡단하는 백로에 대한 통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활주로 상공을 통과 한다면 주변에 서식지와 먹이 공급처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무선조종 항공기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보다 몸체가 크고 소리가 요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무선조종항공기를 만나면 재빠르게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면 차츰 활주로 상공이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하게 된다. 업종으로 개체수를 조절하기는 한계가 있다. 새들이 기지를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면 오라고 사정을 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새들의 주인이었던 푸른 하늘이 이제는 항공기가 주인이 되었다. 흰 날개를 펴고 여름 하늘을 나는 백로를 보면 천사의 날개를 가진 듯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류를 퇴치한다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비행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독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헌정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展>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관능과 환희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그림 110여 점이 국내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1985년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회고전 이후 전시 작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르누아르 단일 전시사상 최대 규모이다.

르누아르는 19세기 후반기 미술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뛰어난 대가들 가운데서 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은 유일한 화가이다. 그는 “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는 예술철학으로 삶의 기쁨과 환희를 현란한 빛과 색채의 융합을 통해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그는 물감 살 돈이 없었을 정도로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폭에 걱정과 우울 같은 비관적인 감정을 담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불우한 상황을 개역치 않는 즐거운 마음으로 <뱃놀이 일행의 점심>(1881), <시골 무도회>(1883) 등 서민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2007 모네전, 2008 반 고흐전에 이어 세 번째 인상주의 대가의 전시회이며, 인물화와 누드화를 중심으로 총 8개 테마로 이뤄졌다. 보다 여유로운 관람을 하려면 비교적 사람이 적은 주말 오전이나 평일을 이용하면 된다.

기간 9월 13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가격 성인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 어린이 8,000원
홈페이지 www.renoirseoul.com



음악만 들어도 쿨~하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독일의 표현주의 극작가 프랑크 베데킨트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1891년 독일의 청교도 학교를 배경으로 했다. 이제 막 성에 눈뜨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불안과 이를 억압하려는 성인들의 참예한 대립을 그린다.

격렬한 록음악과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안무를 통해 청소년들의 곁잡을 수 없는 욕구와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시기를 표현한다. 이 점은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에 대해 새로운 형식의 도발적인 무대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작은 1917년 미국 뉴욕에서 공연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100년 동안 수없이 공연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뮤지컬로 만들어진 후 2006년 브로드웨이, 2009년 1월 영국, 3월 독일, 5월 일본 초연에 이어 7월 한국을 찾았다.

주연을 맡은 김무열은 이번 뮤지컬에 대해 “처음에는 다소 자극적인 부분이 많아 국내 관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들에 오히려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이 두터워질 것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기간 2010년 1월 10일까지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가격 R석 8만 / S석 6만 / 무대석 5만 / 청소년석 4만원
홈페이지 www.springawakening.co.kr





14일간의 목발마라톤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2009년 런던 마라톤이 끝난 지 2주가 흘렀지만 결승선이 설치되어 있던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는 어찌된 일인지 마라톤의 결승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미 끝났지만 아직까지 결승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쪽에 목발을 짚은 채 피로와 고통으로 지쳐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드디어 해냈다'는 자신감이 비쳤습니다. 그가 마지막 걸음을 내딛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수백명의 시민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목발을 짚고 무려 14일 동안 걸어서 런던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필 퍼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왕립군 경찰 소속 소령으로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피커는 지난해 2월, 바스라 지역 영국군 기지에서 로켓 공격을 받고 장갑차에 깔려 척추를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허반신이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절망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자 발가락에 드디어 감각이 돌아왔고 며칠 뒤에는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1년여 만인 지난 3월엔 드디어 혼자서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엄청난 의지력으로 기적을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그가 목발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된 지 한 달 만에 런던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 것은 상이군인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3만 5,000여 명의 다른 참가 선수들은 당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그는 홀로 남아 하루 3.2km씩을 걸었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하다는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첫날엔 다리가 자주 마비되어 200m를 걸을 때마다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 웨스트민스터의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5만 2,400여 걸음을 걸어 마침내 기나긴 레이스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에서부터 학교 급식담당 아주머니,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그의 도전에 깊은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구간마다 줄을 서서 박수를 치고 그에게 기금을 건넸습니다. 모금된 돈은 자그마치 1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커의 도전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내달 미국 오세티지 국립공원에 있는 910m의 바위산 '엘 카피탄'에 오르며 상이군인을 위한 기금 마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4

藏茶 장다

차의 보관

藏茶

造茶始乾先盛舊盒中外以紙封口過三日後其性復以微火焙極乾待冷貯壚中輕築實以箬襯緊將花筍筴及紙數重封緊壚口上以火煨磚冷定歷之置茶育中切勿臨風近火臨風易冷近火先黃

은은한 茶 맛의 비결 茶神傳 4장 藏茶

차(茶)가 생산되는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 지역은 곡우(穀雨)전후 해마다 4, 5월에 야생차 축제와 다향제가 열리고 차를 소비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6월부터 가을까지 전통 차(茶)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중 하나가 차(茶)이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인 차는 뿌리가 땅속에서 각종 무기물(無機物)을 수분으로 흡수하고 태양의 광합성작용(光合成作用)으로 성장하므로 물이 필수적이며, 찻잎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것은 찻잎속의 수분을 제거하여 인간에 유용한 효소(酵素)와 무기물을 얻기 위함이다.

봄철에 만든 차(茶)를 구입하여 보통 1년 동안 먹는데 아무리 좋은 차(茶)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 차(茶)의 성분이 변하며 변질된 차(茶)를 마시며 위장(胃腸)을 냉하게 하여 몸을 상하게 하므로 좋은 차(茶)를 구입하는 만큼 보관도 중요

하다.

차(茶) 농가에서 아니면 대형마트나 각종 전시행사에서 고가(高價)로 구입한 제품이 대부분 장마철이 지나면 맛과 향이 변하여 차(茶)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만다. 공기속의 습기(濕氣)와 산소가 단단한 철(鐵)도 붉게 녹 쓸게 하는 것처럼 차(茶)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와 대기 중의 노출을 적게 하는 것이다.

차(茶)를 만들어 포장할 때는 찻잎의 수분을 거의 다 제거하고 품질유지를 위하여 저온저장을 하거나 진공포장을 하여 판매를 한다. 그런 연유로 차(茶)봉지를 처음에 개봉할 때는 바삭바삭하고 향기도 좋지만 입구를 밀폐하지 않고 개봉한 상태로 오래 두면 공기속의 수분과 산소가 함께 접촉하여 폴리페놀 성분이 변한다. 그 결과 차의 맛과 색상의 본모습을 잃어버리고 찻잎의 비타민C 함량을 변화시켜 품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차의 녹색을 띠는 엽록소는 저장중의 온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찬바람과 화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햇빛이 닿는 장소에서는 화학적인 성분 변화가 일어나 냄새가 발생하므로 투명한 비닐보다 알루미늄 포장지를 사용하여 나무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광선의 투과를 차단시킬 수 있다. ㉞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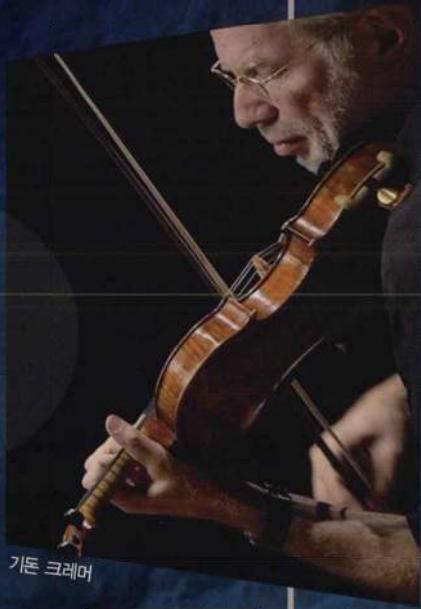


일반 가정에서 차 보관법

1.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을 때가 차(茶)변질이 가장 심하다. 냉장고에서 냉장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의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물기가 생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냄새를 잘 흡착한다는 사실을 꼭 감안하여 신선한 곳에 보관한다.
3. 공기와 고온을 피해야 한다.
4. 개봉한 차는 가능한 진공 팩에 보관한다.

전통방식의 차 보관

1. 차(茶)를 만들어 건조시킬 때에는 평소 사용하던 합(盒)에 담아 입구를 종이로 봉하여 3일 후에 차(茶)의 성질이 회복되면 다시 약한 불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완전히 식으면 대나무 껍질로 황이리 속을 두르고 가볍게 담고,
3. 죽순과 종이로 몇 겹을 싸서 단지 입구를 봉하여,
4. 그 위에 벽돌을 구워서 식혀 눌러둔다.
5. 차 용기를 보관함에 있어 바람 부는 곳이나 불기운이 있는 곳에 두면 안된다. 찬바람을 맞으면 냉(冷)해지고 화(火)기에 접하면 황색(黃色)으로 변한다.



기돈 크레머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자 (2)

■ 정홍래 | KBS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서울대 음악학 석사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곤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도 전설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결코 해내지 못할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되죠.

오늘 클래식 음악가의 거장을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살아있는 전설'로 전해지는 세 명의 음악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세 명의 연주자 모두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지닌 개성이 넘치는 음악가들이네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Martha Argerich)',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Misha Maisky)',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Gidon Kremer)'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 명의 연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음악가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입니다. 남미의 열정이 가득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이 음악가는 굵은 선을 지닌 연주자입니다. 칙칙의 검정색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열적으로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 주었죠. 힘과 열정이 넘치는 그녀의 연주는 그녀의 음악을 듣는 사람도 설레게 했는데, 특히 아름다웠던 그녀의 젊은 시절은 못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요즘은 '백발마녀'처럼 길고 푸석한 흰 머리를 풀어헤치고 연주하지만,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를 연거푸 마시고 단숨에 녹음을 마쳤다는 1965년의 앨범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설'로



마르타 아르헤리치



미샤 마이스키

남아있는데요. 이 피아니스트처럼 '살아있는 거장'이라는 극찬을 받는 음악가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와 절친한 이 연주자는 '패션 리더'라고 소개하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남성적인 외모를 지닌 이 첼리스트는 연주하는 곡마다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곡의 분위기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나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래서 '마이스키'는 해외공연을 다닐 때에도 여러 벌의 옷을 넣을 수 있는 구김이 가지 않는 셔츠를 좋아하는데요. 일본 디자이너가 생각해낸 잔주름이 많은 이 옷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만큼 첼리스트 '마이스키'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는 이 첼리스트의 지난 과거에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던 '스물두살'의 나이에 마이스키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징집을 당하게 되죠. 예술가를 억압했던 '소비에트 정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첼로를 연주할 수도 없고, 자유도 억압당한 이 연주자는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그의 삶에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그의 깊이 있는 연주는 그러한 삶의 질곡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키'와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슈만의 봄>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연주자는 극 중에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역할을 맡았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긴 손가락을 지닌 이 연주자는 마치 신들린 것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했죠.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한 그의 연주를 들으며 200년 전의 전설적인 연주자 '파가니니의 환생'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았던 바로 그 연주자였죠.

요즘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고 있는 이 연주자는 자신의 고향인 발트연안의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가 창립한 단체 '크레메라타 발티카(Kremerata Baltica)'는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으로 발트 연안의 매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살아있는 거장'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



로 이 세 음악가가 함께 작업한 음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소개드린 여류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와 패션 리더 첼리스트 '마이스키'는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정열이 가득한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소련의 첼리스트의 만남이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곱실거리는 머리카락과 보헤미아풍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인상에서 서로 비슷한 느낌이 전해지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강한 끌림을 느끼는 이 두 사람은 한 번 말문이 열리면 끝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들은 연주할 때에도 마치 남매지간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이올리니스트 '크레머'는 이 두 사람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르헤리치'는 '크레머'의 음악에서 자신과는 다른 느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소리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음악가는 서로의 음악을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절친한 음악가입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들만의 매력을 지녔지만, 함께 연주할 때만큼은 서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한 작업은 오래 기억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이 너무나 바빠서 함께 한 작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들 살아있는 전설이 함께 한 작업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창공 글타〉의 '아버지 나무 - 아버지, 세상 끝에 서다'를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내게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가시지는 않았지만 태어나 자마자 영어사전을 사오시며 공부를 많이 시키고자 하셨다는 아버지가 그리워 집니다.

- 강건우, 인천시 남동구 -

#2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벌써부터 그 기대가 큼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미국의 유명한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상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징병이라면 한 번쯤은 동참해 봤을 36.5°C의 따뜻한 사랑 나눔인 헌혈에 관하여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장훈, 경기도 구리시 -

#3

〈부대동정〉에 '전대, 조종사 탐색구조 연합훈련'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훈련하는 사진도 잘 실렸고 상세하게 설

명이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월간「공군」을 읽을 때마다 중간 중간 한 번씩 깊이 생각해 오게끔 하는 문장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정철균, 광주시 광산구 -

#4

〈창공 60주년 특집〉에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를 보면서 골목하게 성장한 우리 공군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창공 60주년 우리 공군의 역사만큼 공군에서 복무한 우리 국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군복무기를 투고 받아 무용담이나 에피소드, 사나이의 우정과 보람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강태균, 부산시 해운대구 -

#5

집에 '헤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CD가 있는데, 평소에 지휘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었습니다. 집에 딱 하나 있는 클래식 CD라서 모셔두고 있었는데

이번 호에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투기의 종류나 가격, 계급장의 모양 등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 최술아, 경기도 가평군 -

#6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2013년에 준공된다니 설레고 떨립니다. 그 시간이 빨리 다가 왔으면 합니다. 우리 집 딸이 여중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장래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공군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이 힘이 되도록 좋은 '공군' 만들어주세요^^

- 최향숙, 충남 태안군 -

#7

제주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공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읽고 미래에 공군의 위상을 생각하며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펼쳐질 항공우주 박물관이 나라를 펼 2013년을 자녀와 함께 손꼽아 기다립니다.

- 이정윤, 전라북도 전주시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요 금
수취인후납부됨
발송유효기간
2009. 6. 1~2010. 5. 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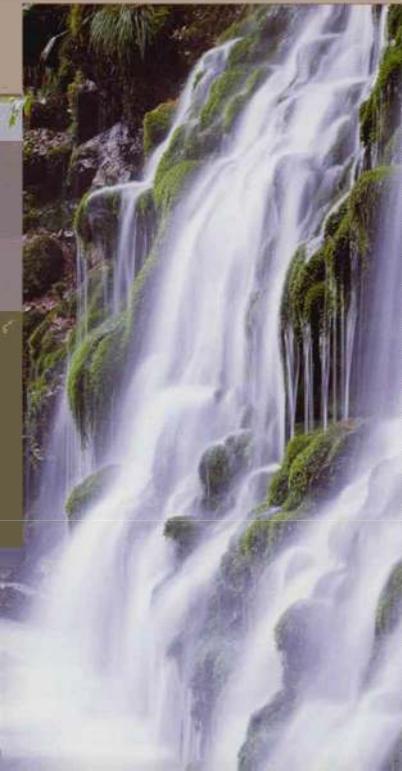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7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7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7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30일까지

1. 1950년 7월 3일, 첫 출격을 맡았던 F-51 무스탕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 5곳의 지명은 어디인가?
2. '날아다니는 첩보 위성' 이라고 불리며 첨단 레이더와 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정찰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3.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화된 조국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를 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5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이작 필면
2. 제주항공우주박물관
3. 무하마드 유누스

퀴즈 당첨자

- 인천시 남동구 강건우
경기도 구리시 장훈
광주시 광산구 정철균
부산시 해운대구 강태균
경기도 가평군 최솔아
충남 태안군 최향숙
전북 전주시 이정윤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항공 우주에 대한 꿈을 심자!
공군만의 특색화 청소년 캠프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



▶ 캠프안내

기간 : 2009. 7. 27.~7. 30.(3박 4일)
장소 :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남·여 80명
주최 : 대한민국공군, 한국항공소년단



▶ 주요프로그램

<항공우주관련>

항공기초이론
항공과학실험(풍동실험실)
항공생리훈련
비행체험(C-130탑승)

<지/해상 생환훈련>

낙하산 지상훈련
수중생환훈련
임벽등반



<기타활동>

사관학교 소개
조종사/생도와의 만남
미술/군악 공연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2008 공군항공우주캠프